metro®

메트로 2014년 9월 5일 금요일 제3051호 www.metroseoul.co.kr



고사리 손 송편빚기 추석을 앞둔 4일 오후 서울 중구 다산어린이공원에서 열린 한가위 축제에서 신당5동 어린이집 원생들이 송편을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민족 최대 명절… 4000만명 대이동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즐거운 시간 되세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와 잇따라 벌어진 각종 사건 사고로 뒤숭숭한 명절이 되고 말았다. 이럴 때 일수록 오랜 기간 만나지 못했던 가족 친지들과의 시간이 더욱 절실해진다.

올해 추석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보름달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안녕과 행복 등 작은 소원을 빌어보는 것은 사치가 아닐 것이다.

이번 추석의 특징은 38년만에 찾아 온 '가장 이른 추석'이라는 것이다. 또 처음으로 '대체 휴일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교통 체증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5일부터 11일까지 4000만 명의 대이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추석보다 165만 명이 늘어난 것이다. 또 이 기간 하루 평균 564만 명이 육상길을 중심으로 하늘길과 바닷길을 이용하게 된다.

◆지자체 행사 다채 휴가객 잡기

추석 연휴기간 전국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져 볼거리를 제공한다.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이 되는 강원 평창군 봉평면 효석문화마을에서는 '평창효석문화제'가 5~14일 10일간 아름다운 메밀꽃밭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또 충남 홍성군에서는 '홍성남당항대하축제'가 열린다. 우리나라 최대의 대하축제인 만큼 생새우를 비롯해 다양한 대하요리를 실컷 맛볼 수 있다.

축제는 서울 도심에서도 이어진다. 남산골 한옥마을은 8일과 9일 이틀간 '오(五)대감 한가위 잔치'를 준비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청계천에 있는 사옥 내 관광안내전시관에서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를 연다.

◆TV·극장가 볼거리 가득

안방극장도 볼거리가 풍성하다. KBS·MBC·SBS 등 공중파 3사는 '리얼' '외국인' '복고'를 키워드로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 케이블 채널들도 국내 드라마는 물론 미드(미국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특선 영화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로 안방극장을 가득 채울 예정이다.

극장가는 '타짜-신의손'과 '두근두근 내 인생' 등 국산 영화가 선의의 경쟁을 벌이며 대세남 최민식이 주연으로 나선 할리우드 진출작 '루시'가 추석 대목 잡기에 나선다. 어린이들을 위한 가족 애니메이션도 개봉했다.

◆류현진·태극전사 출격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의 류현진(27)은 추석 당일 등판이 유력하다. 한국 시간으로 8일 오전 5시 10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홈경기에 선발 투수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에게 15승 선물을 줄 것인가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 고향길 고생 길이지만
> 정겨운 피붙이 만나서
> 차례지내고 송편 먹고
> 오순도순 정담 나누니
> 이보다 좋은일 있으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5일 베네수엘라와의 평가전에 이어 추석 당일인 8일 오후 8시 우루과이와 경기를 벌인다. 지난 브라질 월드컵에서 1무 2패로 16강 진출에 실패했던 대표팀은 남미 강호와의 2연전을 통해 명예회복에 나선다는 각오여서 역시 많은 축구팬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때이른 추석에 건강이 최고

여름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은 건강이다.

식약처가 발표한 통계를 봐도 9월은 1년 중에 식중독 위험이 가장 큰 달이다. 게다가 명절 음식은 한꺼번에 많이 조리하고, 많은 가족이 함께 먹기에 빈틈없이 위생 관리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명절음식 재료는 올바른 순서로 구입하고 최소량만 준비해야 한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 조리 전 손 씻기는 필수다. 차례상 요리 후 2차 오염을 막으려면 칼과 도마는 재료별로 구분해야 한다.

아울러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http://www.e-gen.or.kr)에서 지역·일자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번 없이 119나 120에 전화해도 안내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응급의료정보제공'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영일·황재용·장병호·김학철기자
prms@metroseoul.co.kr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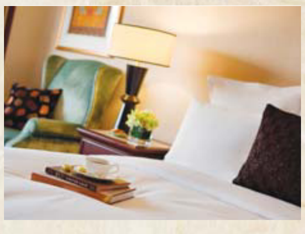
알림

추석이야 보름달에게 소원을 말해봐

"글 올리면 선물 드려요"

메트로신문이 고향가는 독자들에게

국내 유일 무료 신문 메트로신문은 추석 연휴 귀성길, 고향 가는 길에 기쁘고 넉넉하게 다녀 오시라는 뜻에서 애독자 여러분께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오는 10일까지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metroseoulnews)에 '한가위 보름달에 기원하실 일'을 30자 이내로 써서 응모하시면 추첨을 통해 8명께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은 특급 호텔 숙박권과 식사권으로 온 가족과 연인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메트로신문은 앞으로 더 질 높은 컨텐츠로 독자 여러분께 다가서겠습니다. 당첨자는 15일 개별 통보합니다.

- 신라스테이 동탄 숙박권 2명
- 르네상스서울호텔 숙박권 1명
- 르네상스서울호텔 뷔페식사권 2명
- 스탠포드호텔 숙박권 3명

metro

'리얼·외국인·복고'

지상파 추석 키워드

리얼·외국인·복고. 올 추석 지상파 3사(SBS·KBS·MBC) 특집 프로그램의 키워드다. 정글에서 생존하는 법을 터득한 김병만을 비롯해 한글 공부에 열정이 가득한 할머니들의 체험기가 감동을 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스타가 대세인 가운데 한층 더 심화된 외국인 방송이 찾아온다. 외국인 노래자랑의 수준을 넘어 그들의 한국 적응을 돕고 일상을 조명한다. '쟁반노래방' '나는 가수다' '건강보감'은 2014년판으로 재구성돼 전 세대를 아울러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열정과 감동' SBS

SBS는 '주먹 쥐고 주방장'과 '열창클럽 썸씽(Sing)'을 새로 선보인다.

'주먹 쥐고 주방장'(9·10일 오후 5시 40분)은 '주먹 쥐고 소림사'에 이은 김병만의 두 번째 도전기다. '…주방장'에 앞서 8일 오후 5시 50분에는 '…소림사'를 편성했다. '…주방장'은 프랑스·이탈리아와 함께 세계 3대 요리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중국 정통요리를 다섯 명의 연예인(김병만·육중완·헨리·빅토리아·강인)이 체험하고 최고 주방장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는다.

9일과 10일 오후 8시40분에는 음악과 토크가 결합한 프로그램 '열창클럽 썸씽'이 방송된다. 강호동과 김정은이 진행하고 박근형·임상아·다이나믹듀오·악동뮤지션·임창정·로이킴이 출연해 자신을 위로하고 행복하게 했던 특별한 노래와 이야기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대를 꾸미는 방송이다.

정규 프로그램 '웃찾사' 'TV동물농장' '스타 주니어쇼 붕어빵' '접속!무비월드' '생활의 달인' 등은 명장면을 모아 재미와 감동을 줄 것으로 보인다.



SBS '열창클럽 썸씽' 임상아.

SBS '주먹 쥐고 주방장'.



KBS1 '리얼 한국정착기 이방인' MC 알렉스.

◆'온 가족이 함께' KBS

외국인이 방송 트렌드인 가운데 KBS1은 오는 6일, 7일, 14일 오후 10시 30분 파일럿 3부작 '리얼 한국정착기 이방인'을 방송한다. 가수 겸 배우 알렉스가 MC로 나서 3명의 이방인(케냐 출신 아디·이탈리아 출신 다비드·독일 출신 로미나)이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9일 오전 10시엔 문맹탈출 프로젝트 KBS1 '할머니는 1학년'이 방송된다. 평균 나이 80세인 할머니들이 까막눈을 극복하기 위해 수업받는 모습을 담았다. 박미선, 송은이, 김영철이 일일 선생님으로 나선다. 할머니들의 한글사랑, 웃음과 눈물이 어우러진 학예회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KBS1 '할머니는 1학년'.

같은 날 오후 6시에는 KBS2 '당신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개그콘서트'를 만날 수 있다. 김구라·허경환·조우종 KBS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았다. '개그콘서트' 대세들로 구성된 개그 판정단(박성호·김대희·김준호·정명훈·유민상·김준현)이 동료들의 코너를 평가한다.

8일 오후 6시 10분에는 과거 큰 인기를 얻었던 '쟁반 노래방'의 2014년 버전 '쟁반 릴레이송'이 시청자를 찾아간다. 신동엽과 아이유가 호흡을 맞춘다. 3명의 연예인이 한 팀이 돼 총 다섯 팀이 서바이벌 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태진아·임창정·김창렬·박현빈·허각·에일리·케이윌·홍진영·원미연·김완선 등이 출연한다.

◆'레전드 귀환' MBC

MBC의 과거 대표 프로그램이 추석 특집으로 돌아온다. 듣는 음악 열풍을 주도한 MBC '나는 가수다'는 9일 오후 6시에 방송된다. 시나위·김종서·박기영·더원·플라이투더스카이·씨스타 효린이 출연한다. 가창력 있는 아이돌 가수가 합류하면서 다양한 연령대의 시청자를 사로잡을 것이다.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대표 코너 '건강보감'은 10일 오후 6시 '건강보감 리턴즈'로 시청자를 만난다. 30% 시청률에 육박했던 '건강보감' 진행자 이경규가 김구라·최여진과 함께 한다. 샘 해밍턴·김광규·데프콘·조정치·서장훈·지나·이윤석·김도균이 출연해 건강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MBC '띠동갑내기 과외하기'.



MBC '건강보감 리턴즈'.

5일과 12일 오후 10시에는 파일럿 프로그램 '띠동갑내기 과외하기'를 방송한다. 12세 차이부터 60세 차이까지 띠동갑의 어린 스승과 나이 많은 제자 4개 팀의 과외 이야기를 담은 리얼 예능 프로그램이다.

외국인 방송인 열풍은 MBC에도 영향을 줬다. 8일 오후 6시에 편성된 '헬로 이방인'에선 한국에 사는 외국인 남녀들이 게스트 하우스에 모여 가족의 정을 나눈다.







케이블 채널 가이드 드라마·예능·영화 '종합선물세트'

올 추석 케이블 채널은 그 숫자만큼이나 많은 특집 방송을 준비했다. 국내 드라마는 물론 미드(미국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특선 영화까지 다채로운 볼거리가 안방극장을 가득 채울 예정이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 인기 드라마 복습하기

MBC 드라마넷은 인기 주말드라마 '왔다 장보리' 최신회를 방영한다. 오는 6일 오후 3시 30분엔 41·42회를 두 차례 방송하며 7일 오후 1시엔 37~42회를 연이어 내보낸다.

tvN은 8일 오전 8시 금토드라마 '아홉수 소년' 1~4회를, 9일 오전 9시 20분 일요드라마 '삼총사' 1~4회를 연속 방송된다. 10일 오전 8시에 월화드라마 '마이 시크릿 호텔' 3~6회를 볼 수 있다.

'미드 마니아'를 위한 해외 드라마도 기다리고 있다.

온스타일은 6~10일 오전 2시부터 '섹스 앤 더 시티' 시즌 4·5 전편을, 5~10일 오전 8시부터 시트콤 '모던 패밀리 시즌5' 전편을 편성했다.

폭스 채널은 인기 미드 5편을 엄선, 5~9일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크리미널 마인드' 'NCIS' 'NCIS: LA' '명탐정 몽크' '수퍼내추럴'의 인기 에피소드를 방송한다.

씨네프는 국내 미방영작을 선보인다. 6·7일 오후 8시엔 IT 괴짜들이 벤처기업을 차린 후 벌어지는 일을 그린 시트콤 '실리콘 밸리'가 4회씩 연속 공개된다.

◆ 대세 예능 몰아보기

최신 유행어에 뒤처진 상태라면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인기 예능을 복습해보는 것은 어떨까.

MBC 에브리원은 MBC의 인기 예능을 선별했다. 간판 예능 '무한도전'은 7~10일 오전 10시에 만나볼 수 있다. 7~9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엔 '아빠 어디가'와 '진짜 사나이'가 방송된다.

tvN은 6일과 9일 오후 3시에 '꽃보다 청춘' 페루 편 1~6회를 연속 방송한다. 콩트 프로그램 '코미디 빅리그'는 7일 오후 7시 40분에 추석 특집편을, 8일 오후 4시 20분엔 '코미디 빅리그 핫&뉴'를 방영한다.

추석만을 위해 준비된 예능 프로그램도 있다. 6일 오후 9시 50분 'SNL 코리아' 추석특집엔 가수 조영남이, '현장토크쇼 택시'엔 한국으로 장가 온 외국인 사위 에네스 카야와 크리스 존슨이 출연한다.

엠넷은 서바이벌 예능을 방송한다. '슈퍼스타K 6'의 1~3회는 각각 7일 오전 10시, 9일 오후 3시, 10일 오후 6시30분에 볼 수 있다. '쇼미더머니3'의 단독공연 회차인 8~10회가 10일 오전 10시부터 연이어 방송된다.

◆ 최신 영화는 케이블 채널에서

영화 전문 채널들은 최신작부터 고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준비했다.

씨네프는 8~10일 오후 8시에 각각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이 살아 남는다' '아무도 머물지 않았다' '애니씽 포 허'를 TV 최초로 방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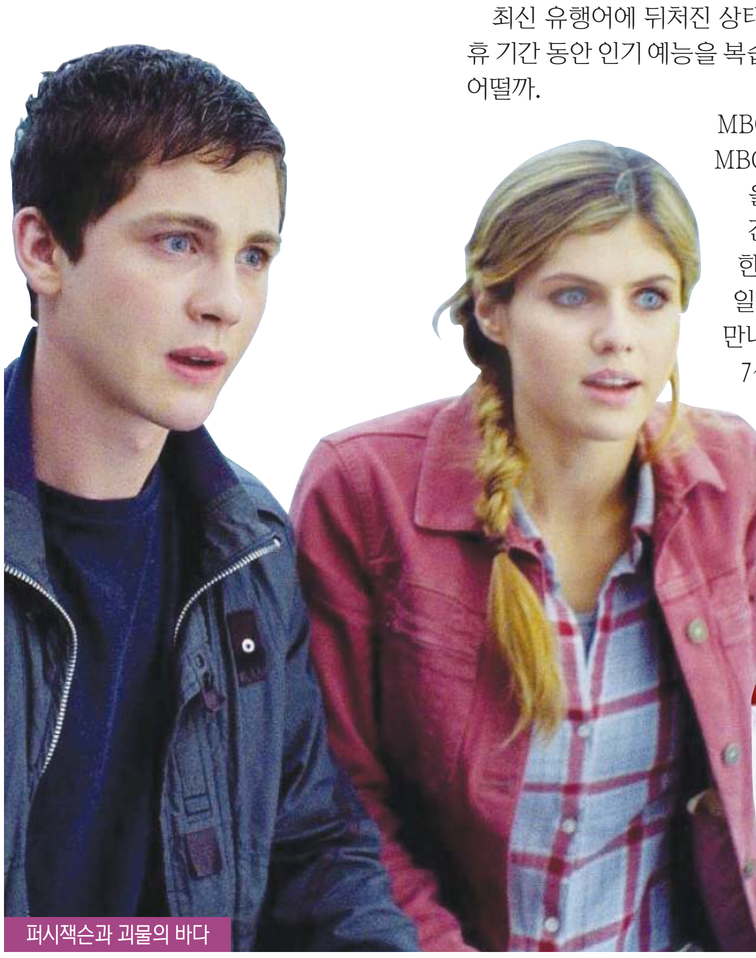
스크린은 장르별로 묶어 편성했다. 6일엔 액션영화 '본 레거시' '원티드'를, 7일엔 서부영화 '장고' '돌아온 황야의 7인', 8일엔 무협영화 '무협' '영웅: 천하의 시작' 등을 볼 수 있다. 9일엔 한국영화 특집으로 '은교'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바람' '후궁' 등이 방송된다.

OCN 역시 최신작을 엄선해 시청자를 사로잡을 계획이다. 6일 오후 1시 '맨인블랙 3'를 시작으로 오후 10시 '레드 2', 7일 오후 7시 '007 스카이폴', 8일 오후 10시 '라이프 오브 파이' 등이 전파를 탄다. 채널 CGV도 6·7일 오후 10시에 각각 '나우 유 씨 미: 마술 사기단' '라스트 스탠드'를 편성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캐치온에선 7일 오후 9시 10분 '몬스터 대학교'를 볼 수 있으며 만화전문채널 투니버스는 6~10일 연휴 기간 내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명탐정 코난' '안녕 자두야' '놓지마 정신줄' '짱구는 못 말려14' 등을 방영한다.

애니메이션 채널 챔프는 '스튜디오 지브리 인기 애니메이션' 특집을 편성했다. 9일 오후 11시 '귀를 기울이면', 10일 오전 9시 '하울의 움직이는 성' '벼랑 위의 포뇨'를 방송할 예정이다.


퍼시잭슨과 괴물의 바다


쇼미더머니3


섹스 앤 더 시티

추석 극장가 다양하고 풍성한 라인업

대체휴일제 시행으로 5일 동안의 긴 추석 연휴가 코앞에 다가왔다. 극장가도 관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풍성한 라인업을 마련했다. 추석 연휴에 극장에서 볼만한 영화들을 정리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타짜-신의 손


두근두근 내인생


루시

◆ 액션·웃음·감동 담은 대작들

올해 추석 극장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타짜-신의 손'과 '두근두근 내 인생' 그리고 '루시'의 흥행 대결이다.

'타짜-신의 손'은 허영만 화백의 만화 '타짜' 시리즈 중 2부를 영화화한 작품이다. 타짜들의 세계에 겁 없이 뛰어든 주인공 대길(최승현)의 이야기를 그렸다. 스릴러·액션·멜로·코미디 등 다양한 장르가 섞인 성인 취향의 오락영화다. 최승현·신세경·곽도원·유해진·이하늬·김윤석 등 호화 캐스팅도 관객들의 이목을 끈다. 2006년 추석 시즌에 개봉해 전국 684만 관객을 동원한 '타짜'의 인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두근두근 내 인생'은 전 연령대가 볼 수 있는 작품으로 극장가를 사로잡는다는 전략이다. 김애란 작가의 동명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선천성 조로증에 걸린 아들을 둔 가족의 이야기를 그렸다. 신파적인 소재를 세련된 감성으로 풀어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송혜교, 강동원의 부부 연기도 인상적이다.

'루시'는 최민식의 할리우드 진출작으로 화제가 됐다. 뇌 과학을 소재로 한 영화로 대중성은 다소 떨어진다. 그러나 속도감 넘치는 전개와 화려한 영상미가 지적인 영화를 즐기고픈 관객들의 구미를 당길 전망이다. 주연을 맡은 스칼렛 요한슨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도 빼놓을 수 없다.

여름 대작들도 추석 연휴 극장 상영을 이어간다. 1700만 관객을 돌파한 '명량'은 연휴 동안에도 신기록 행진을 이어간다. 전국 715만을 넘어선 '해적: 바다로 간 산적'과 1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둔 '인투 더 스톰'도 만날 수 있다.

◆ 큰 울림 주는 작은 영화들

대작의 공세에 지친 관객들이라면 보다 다양한 소재와 이야기를 다룬 작은 영화들이 그 대안이 될 것이다.

지난달 13일에 개봉한 '비긴 어게인'은 대작들의 흥행 경쟁 속에서 선전하며 1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원스'의 존 카니 감독이 뉴욕을 무대로 음악을 통한 희망을 그려냈다. 키이라 나이틀리, 마크 러팔로, 그리고 밴드 마룬5의 보컬 애덤 리바인이 주연을 맡아 환상적인 하모니를 선사한다.

한국 독립영화 '족구왕'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토익 점수도 없이 제대한 학점 2.1의 대책 없는 복학생 만섭이 사랑과 족구를 쟁취하기 위해 벌이는 이야기를 그렸다. 족구라는 독특한 소재와 청춘 영화의 유쾌함이 녹아든 작품으로 지난해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 화제작으로 손꼽혔다. 개봉 1주일 만에 1만 관객을 모으며 조용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홍상수 감독의 신작 '자유의 언덕'도 추석 연휴 극장가를 찾는다. 인생에서 중요했던 한 여인을 찾기 위해 한국을 찾은 모리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일본 배우 카세 료가 주연을 맡았으며 문소리·서영화·김의성·윤여정·기주봉·이민우·정은채 등 '홍상수 사단' 배우들이 총출동했다. 영화는 시간의 흐름과 무관한 독특한 플롯 구성으로 이뤄졌다. 홍상수 감독은 "시간의 순서를 흐트러뜨린다면 관객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경험할 기회를 갖고 싶었다"고 연출 의도를 밝혔다.


비긴어게인


족구왕

◆ 어린이를 위한 가족 애니메이션


마야


쿰바: 반쪽무늬 얼룩말의 대모험

어린이들을 위한 가족 애니메이션도 4일 동시에 개봉했다. '극장판 도라에몽: 진구의 아프리카 모험-베코와 5인의 탐험대'는 원작자 후지코 F. 후지오의 탄생 8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작품이다. 미지의 대륙 아프리카를 무대로 도라에몽과 친구들의 모험을 그렸다. 일본 개봉 당시 박스오피스 1위에 올라 변함없는 흥행 파워를 입증했다.

'마야'는 독일 아동문학의 거장 발데마르 본젤스의 '꿀벌 마야의 모험'을 스크린에 옮긴 영화다. 꿀벌 왕국을 떠난 마야가 위기에 처한 왕국을 지키기 위해 펼치는 모험을 그렸다. 원작은 TV 애니메이션·출판·캐릭터 상품·뮤지컬 등으로 제작돼 국내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아이들에게는 꿈과 모험을, 부모들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동시에 선사할 작품이다.

'쿰바: 반쪽무늬 얼룩말의 대모험'은 '라이온 킹'과 '잠베지아: 신비한 나무섬의 비밀'의 제작진이 의기투합해 탄생시킨 작품이다. 외톨이 반쪽무늬 얼룩말 쿰바가 완벽한 얼룩말이 되기 위해 마법의 연못을 찾아나선다는 내용의 영화다. 아프리카의 광활한 초원을 배경으로 다양한 동물 캐릭터들이 등장해 재미는 물론 교육적인 효과도 함께 담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청약 저축과 예금, 부금의 기능이 합쳐진 상품입니다.

천만명 이상이 가입한 HIT 비결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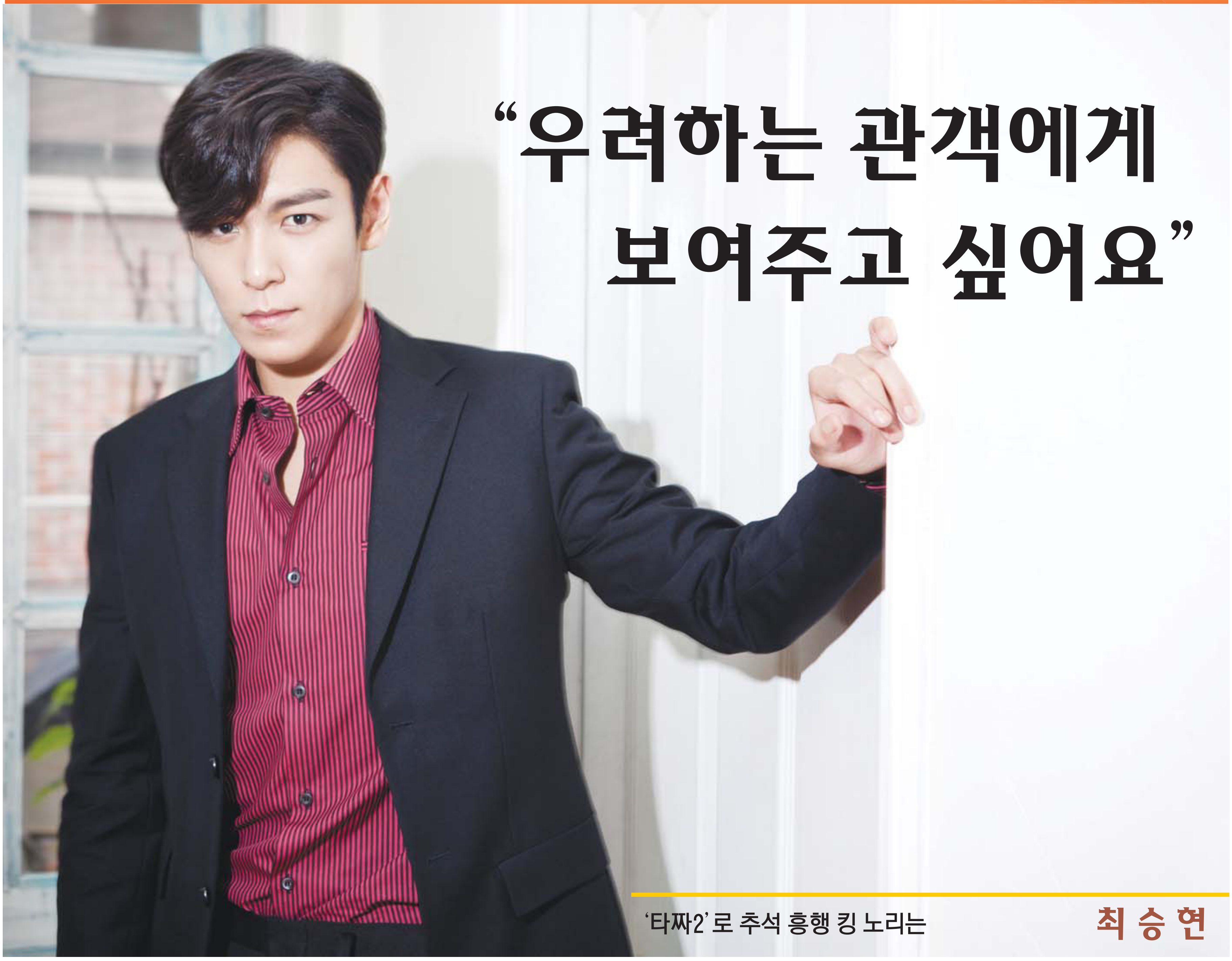
- ☑ **하나, 연 3.3%(세전)** 금리 적용 (단, 가입후 2년 유지시)
  ▶ 중도해지시에도 기간별 금리적용
  1개월초과 : 연 2.0%(세전) / 1년이상 : 연 2.5%(세전)
- ☑ **둘,** 하나의 통장으로 **민영 · 공영 APT 어디나 청약** 가능!
- ☑ **셋,** 미성년자 포함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
  단, 1인 1계좌에 한함(미성년자 가능)
- ☑ **넷, 연말 소득공제 최대 48만원까지** 가능
  단,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에 한함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는 않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으로 관리되며(관리기관 : 국토교통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금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공제기준과 면제액이 납부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중도해지 시 환급세액 추징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처 영업점 창구 또는 상품설명서, 콜센터(1599-8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신한금융그룹 | 신한카드 | 신한금융투자 | 신한생명 |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 | 신한캐피탈 | 제주은행 | 신한저축은행 | 신한데이타시스템 | 신한아이타스 | 신한신용정보 | 신한PE투자자문

"우려하는 관객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타짜2'로 추석 흥행 킹 노리는 최승현

최승현(28·탑)이 영화 '타짜-신의 손'(이하 '타짜2')으로 추석 흥행킹에 도전한다. 영화는 개봉 첫 날(3일) 예매율 1위를 기록하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그러나 정작 최승현은 "예매율 같은 걸 신경 쓰지 않는 편"이라며 "오히려 그걸 생각했다면 겁이 나서 '타짜2'에 출연하지 못했을 거다.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용기 내어 연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타짜2'의 매력을 "에너지"라고 소개했다. "저희 영화는 희로애락이 다 있는 오락물이에요. 사회적으로 우울한 일이 많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관객들이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긴장감을 제공하죠."

최승현은 배우로서 차근차근 성장했다. 드라마 '아이엠샘'(2007)으로 첫 발을 내디뎠고 '아이리스'(2009)에선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영화 '포화 속으로'(2010)로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남자 신인상을 수상했다. '타짜2'는 그의 세 번째 스크린 작이다. '포화 속으로' '동창생'으로 400여 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력을 인정받는 아이돌 출신 연기자다. '타짜2' 흥행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다.

"흥행에 실패하진 않았지만 성공한 적도 없어요. '타짜2'는 원작 만화를 새로 설계한 감독의 연출력이 돋보이는 영화입니다. 저의 티켓 파워는 중요하지 않은 작품이죠. 1편과 2편의 차이점은 감독의 개성에 있어요. 이번 작업을 통해 강형철 감독이 트렌드를 잘 파악하는 영리한 연출가라는 걸 느꼈죠."

그의 눈빛과 목소리는 깊다. 특유의 동굴 목소리와 강렬한 눈매는 그룹 빅뱅의 래퍼 탑으로선 무게를 잡아주고 배우 최승현에겐 묵직한 존재감을 부여한다. 반전 매력은 빙구 같은 면에 있다. 스스로를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다. '타짜2'에서 진지하고 엉뚱한 자신의 모습을 함대길로 표현했다.

"감독님이 '편집하고 좋은 것만 쓸 테니 마음대로 하라'고 코믹 연기를 할 기회를 주셨어요. 덕분에 고민 없이 했죠. 강 감독은 함대길의 매력을 '병신 같을 때 가장 병신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를 캐스팅하셨대요."

함대길은 삼촌 고니(전편의 조승우)를 닮아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손재주와 승부욕을 보이는 인물이다.

"영화를 언론 시사회 때 한 번 봤어요. 저야말로 함대길을 오랜 시간 고민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는 게 어려워요. 함대길이 본능적이고 단순한 인간이라는 점에서 카타르시스를 느꼈죠. 특히 여자 좋아하는 그의 매력에 빠졌어요. 위태로워 보이지만 순진해요. 이 모습이 관객에게 재미를 줄 것 같아요."

이번 영화에서 연예인이 된 후 처음으로 노출을 했다. 빅뱅으로 활동할 때도 팬 사이에선 그가 반팔만 입어도 이슈가 됐으며 심지어 빅뱅 멤버들조차 그의 몸을 자주 보지 못했다. 최승현을 벗게 한 '타짜2'의 매력이 궁금했다.

"시나리오를 봤을 때 노출 장면 분위기가 독특했어요. 진지하지도 감상적이지도 않았죠. 노출하는 상황이 재미있으니까 하게 됐습니다. VIP 시사회엔 지디만 왔어요. 그 친구가 제 노출을 보고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제 몸을 스크린으로 보고 놀랐어요.(웃음)"



> 함대길 매력 위태로움+순진함
> 데뷔 첫 노출 지드래곤도 놀라
> 키스각도 알 만큼 경험은 없어

그는 영화에서 신세경·이하늬 모두와 키스를 한다.

"빅뱅 멤버들 중에선 제가 가장 키스신을 많이 찍었더라고요. '타짜2'처럼 진한 멜로는 처음이에요. '아이리스' 키스신은 입 맞추다가 여자의 목을 꺾어 죽이기 때문에 정통 멜로는 아니죠. (웃음) '키스를 어떻게 해야 멋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진정성이 사라지는 거 같아요. 연출보다는 자연스러운 게 낫죠. 또 각도를 잘 알 정도로 키스를 많이 해보진 않았답니다."

그는 1년 전 '동창생' 인터뷰에서 "시야가 넓어 진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시야가 넓어져서 '타짜2' 함대길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이번 작품을 통해선 더 용기 낼 수 있는 에너지를 얻었죠. 새로운 걸 겁 없이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타짜2'를 가족에겐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쑥스럽거든요. 오히려 우려하거나 기대했던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사진/이완기(라운드테이블)·디자인/최송이



설리 '패션왕'으로 활동 재개할까?

홍보 활동 미정 "소속사와 상의해 결정"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 '패션왕'(감독 오기환)이 오는 11월 개봉을 확정했다.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걸그룹 에프엑스 멤버 설리(사진)가 주연을 맡은 만큼 홍보 활동에 나설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4일 '패션왕' 홍보사 퍼스트룩 측은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설리의 홍보 활동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소속사 측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는 극중에서 미모 대신 등수를 선택한 전교 1등 곽은진 역을 맡았다. 비중 있는 캐릭터로 주원, 안재현, 박세영, 김성오 등과 함께 호흡을 맞췄다.

'패션왕'은 이번 생은 망한 것이라고 생각하던 고등학생 우기명이 '절대간지'에 눈뜬 뒤 인생반전을 꿈꾸게 된다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2011년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돼 주간 조회수 440만 클릭, 누적 조회수 5억뷰, 26주간 네이버 웹툰 베스트 1위 기록을 세운 기안84의 동명 웹툰을 영화화했다. '작업의 정석' '이별계약'을 연출한 오기환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원작은 각종 패러디와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신드롬을 일으켰다. 영화 또한 캐스팅 단계부터 화제를 모았다. 개봉일 확정과 함께 공개한 캐릭터 포스터는 원작 속 인물들과 출연 배우들의 높은 싱크로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전국 718만 관객을 모은 '해적: 바다로 간 산적'에 이어 설리가 또 한번 흥행을 기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장병호기자 solanin@

은비 하늘나라서 소원 이뤘다

팬·동료 애도 물결 레이디스코드 '…땡큐' 차트 1위

레이디스코드(사진)가 1년전 발표한 '아임파인땡큐'가 전 음원차트 정상을 석권하며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아임파인땡큐'는 4일 멜론, 벅스, 지니, 소리바다, 올레뮤직, 네이버뮤직, 다음뮤직, 몽키3, 싸이월드뮤직 등 9개 사이트의 실시간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아임파인땡큐'는 지난해 9월 5일 발표한 레이디스코드의 두 번째 미니앨범 '코드#02 프리티 프리티'의 수록곡으로 1년이나 지난 시점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3일 교통사고로 숨진 레이디스코드의 은비가 생전 "음원차트 1위가 소원"이라고 했던 말이 팬 사이에 회자되며 애틋함을 더하고 있다.

팬은 3일 오후부터 은비를 애도하는 의미에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은비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아임파인땡큐'를 함께 듣자고 제의했다. 이날 저녁부터 이 노래는 음원 사이트에서 급속도로 순위를 높여갔고 급기야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1위까지 올랐다.

팬들은 "보고계시죠. 음원 차트 1위했습니다. 부디 하늘에서는 못다 이룬 꿈을 이루세요" "더 일찍 1위를 시켜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사랑해요. 그곳에서는 더 아프지 말고 행복하기만 바랄게요"라고 애도했다.

한편 은비의 빈소에는 3일 저녁부터 이튿날까지 동료 연예인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은비와 같은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동료인 양동근, 오윤아, 김완선, 아이비, 럼플피쉬, 선우, 정준 등은 빈소를 찾아 애도했다. 레이디스코드와 데뷔부터 함께한 프로듀서 슈퍼창따이도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은비의 발인은 5일 오전 8시에 진행된다. 권리세는 뇌를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소정은 골절상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멤버 애슐리와 주니는 다행히 부상 정도가 경미하지만 큰 충격을 받아 여러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JYJ 활동 안 해도 日 월간차트 정상



그룹 JYJ(사진)가 일본 타워레코드 월간차트 1위를 기록했다.

JYJ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4일 "7월 국내에서 발매된 JYJ의 정규 2집 '저스트 어스'가 일본 타워레코드 월간(8월) 종합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JYJ는 일본에서 정식 활동이나 앨범 발매 없이도 일주일 만에 일본 오리콘 주간 차트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씨제스는 "현재 아시아투어의 일본 도시가 확정되지 않아 팬들의 문의 또한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JYJ는 지난달 9일 잠실을 시작으로 2014 JYJ 아시아투어 '더 리턴 오브 더 킹'을 진행 중이며 6일 중국 청두에서 다섯 번째 공연을 이어나간다.

/유순호기자

빅 이벤트 몰려있는 '스포츠 명절'

다채로운 스포츠 이벤트가 긴 연휴를 풍성하게 채운다. 류현진의 야구·축구 대표팀의 경기를 보며 올 추석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한국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하는 재미가 쏠쏠할 것으로 보인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아침엔 류현진, 점심엔 씨름 한판, 저녁엔 '대~한민국'


이동국
손흥민



◆ 류현진의 추석선물은 15승!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의 류현진(27)은 추석 당일 등판이 유력하다.

기존 로테이션상으로는 7일 등판해야 하지만 댄 해런의 등판이 하루 미뤄져 한국 시간으로 8일 오전 5시 10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홈경기에 선발 투수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저스의 돈 매팅리 감독은 지난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펫코파크에서 열린 샌디에이고와의 경기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6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에 댄 해런이 선발 등판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런이 4일이 아닌 6일에 등판함에 따라 다저스의 2선발 그레인키는 7일 등판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에서는 류현진이 8일 애리조나전에 선발 등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일 샌디에이고를 제물로 시즌 14승째를 챙긴 류현진이 지난해 거둔 14승의 기록을 뛰어넘어 메이저리그 진출 후 최고 성적을 달성할 지가 경기의 관전 포인트가 된다. 이날 등판하게 된다면 엿새 동안의 휴식 기간을 가진 것으로, 많이 쉴수록 더 강해지는 류현진 스타일상 호투가 기대된다.

기록상 류현진은 엿새 이상 휴식을 보장받은 등판에서는 패배 없이 5승을 달성했다.

한편 다저스는 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다저스타디움서 열린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홈경기서 연장 14회 접전 끝에 5-8로 패했다. 이로써 다저스는 시즌 전적 78승 62패를 기록하며 2위인 샌프란시스코와 2경기 승차로 좁혀졌다. 팽팽한 1, 2위 싸움에서 다저스의 선두 수성을 위한 류현진의 호투가 기대된다.

◆ 태극전사 '추석포' 쏜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5일 베네수엘라와의 평가전에 이어 추석 당일인 8일 오후 8시 우루과이와 경기한다. 지난 브라질 월드컵에서 1무 2패로 16강 진출에 실패했던 대표팀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9월을 '명예 회복'의 달로 삼고 있는 대표팀이기에 남미 강호와의 2연전은 더욱 관심을 끈다.

베네수엘라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9위, 우루과이는 6위에 올라 57위인 한국보다 객관적인 전력이 크게 앞선다. 한국으로서는 벅찬 상대지만 태극전사들은 국내 팬들에게 화끈한 승리를 선물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오랜만에 대표팀에 복귀한 이동국은 베네수엘라 평가전을 통해 센추리클럽(A매치 100경기 이상 출전)에 가입한다. 1998년 태극마크를 처음 단 이동국은 현재까지 A매치 99경기에 나서 30골을 넣었다. 이번 시즌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베테랑 공격수의 화력을 기대해 볼 만 하다.

여기에 독일 분데스리가 시즌 초반부터 화끈한 골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손세이셔널' 손흥민(22·레버쿠젠)의 득점쇼도 기대된다.

'의리' 논란으로 엔트리 선발부터 삐걱됐던 홍명보호는 '회식 파동' 등 으로 국민들의 가슴에 구멍을 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평가전은 월드컵 이후 첫 경기인 만큼 기대 또한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본과의 크로스 매치라는 점, 감독 없이 경기를 치른다는 점이 부담이다. 객관적으로 전력이 앞선 남미 팀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승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오른쪽 종아리 부상을 당한 구자철(마인츠)은 5일 베네수엘라와의 평가전에 출전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8일 맞붙을 우루과이는 에딘손 카바니(파리생제르맹), 디에고 고딘·크리스티안 로드리게스(이상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 브라질 월드컵에 나섰던 정예 멤버 상당수가 출전한다. '핵이빨' 수아레스는 제외돼 이날 경기에서 볼 수 없다.

◆ 추석하면 '씨름'

민족 대명절 한가위 씨름판도 후끈 달아오른다. 대한씨름협회가 추석에 가장 큰 대회를 열기 때문이다. 이번 2014 추석장사씨름대회는 5~9일까지 경상북도 상주체육관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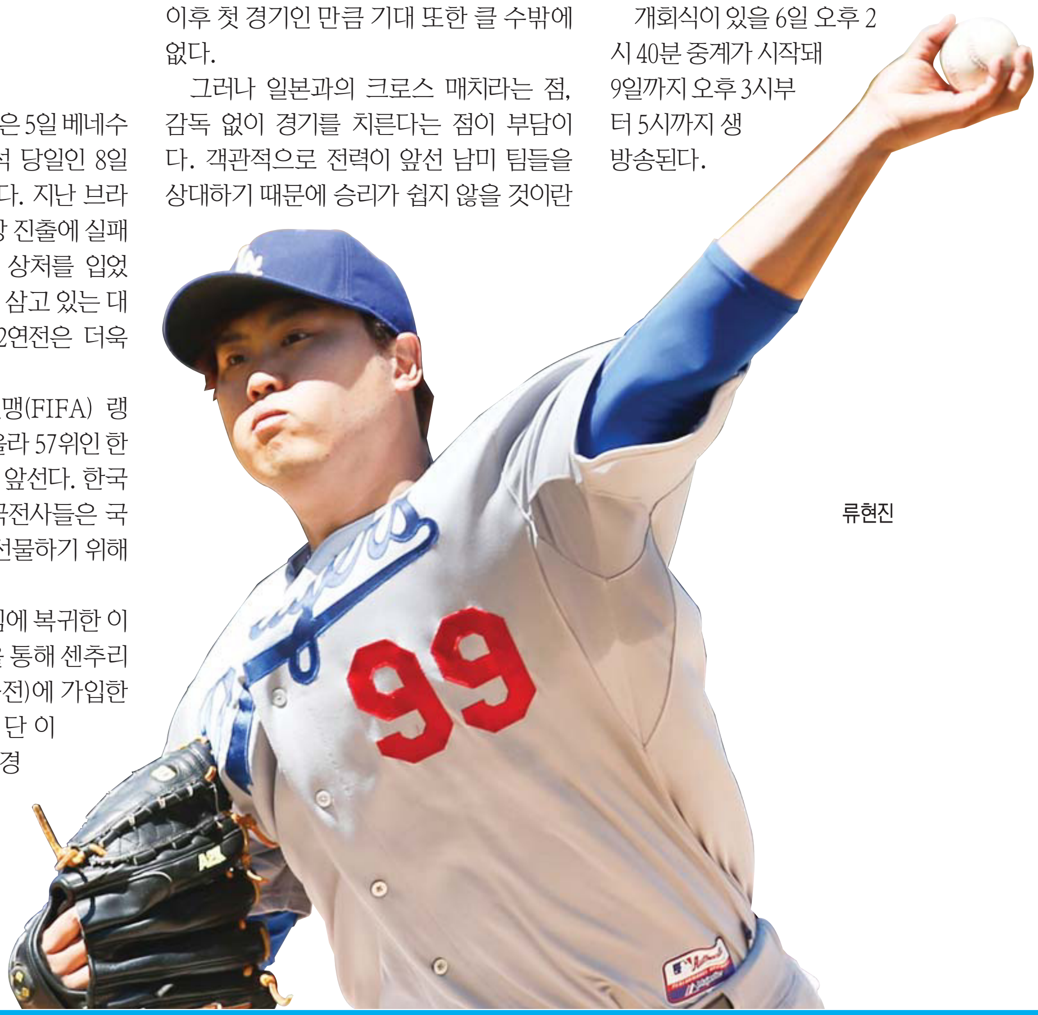
5일에는 태백급(80kg 이하) 예선이 펼쳐지고 대회 공식 개회식이 열리는 6일부터 체급별 장사 결정전이 열린다. 6일에는 태백급, 7일 금강급(90kg 이하), 8일 한라급(110kg 이하), 9일에는 백두급(150kg 이하)의 장사가 차례로 탄생한다.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거구들이 맞붙는 백두급에 쏠린다. 올해 두 차례나 꽃가마에 오른 '신흥강호' 김진(25·증평군청)이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힌다.

8월 대통령기 전국대회 통일장사부 정상에 오른 김민성(27·구미시청)이 김진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지난해 3관왕을 차지하며 2013년 최우수선수로 뽑힌 정경진(27·창원시청)도 추석 대회에서 2014년 첫 타이틀 획득을 노린다.

한편 대한씨름협회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씨름 활성화를 위해 매화급(55kg 이하), 무궁화급(75kg 이하) 두 체급으로 나눠 여자씨름도 선보일 예정이다.

개회식이 있을 6일 오후 2시 40분 중계가 시작돼 9일까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생방송된다.



류현진

보름달 같은 금메달 부탁해~



손연재·진종오·오진혁 AG 앞두고 '모의고사'

◆ 손연재 FIG 월드컵 출전

민족 대명절 추석에 해외에서 아시안게임 '모의고사'를 치르는 선수들이 있다.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리듬체조 금메달을 노리는 '체조 요정' 손연재(20·연세대)가 추석 연휴 기간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국제체조연맹(FIG) 월드컵에 출전한다. 올 시즌 마지막 월드컵 대회라는 점에서 세계선수권과 아시안게임을 앞둔 손연재에게 마지막 점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후프·볼 예선, 6일 곤봉·리본 예선을 치르고 종목별 상위 8명이 치르는 결선은 7일에 열릴 예정이다.

손연재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터키 이즈미르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 출전과 다음달 1일과 2일에 있을 아시안게임 리듬체조 부분 출전을 앞두고 있다. 이번 월드컵부터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까지 3개 대회를 소화해야 하는 강행군에 나선 것이다.

손연재는 지난해 세계선수권에서 역대 한국 선수 최고 성적인 개인종합 5위를 기록했지만 종목별 메달을 따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달 11일 막을 내린 던디 월드컵에서는 개인종합 3위에 오르며 자신감을 충전했다. 여세를 몰아 월드컵 시리즈 11개 대회 연속 메달을 기록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놓고 경쟁할 중국의 덩썬웨의 출전 여부도 관심사다. 손연재는 지난 던디 월드컵 개인종합에서 덩썬웨를 7위로 밀어내고 확실하게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한편 손연재가 출전하는 아시안게임 리듬체조 경기 입장권은 한 달 전에 매진됐다.

◆ 진종오 세계선수권 만점 조준

한국 사격 간판 진종오(35·KT)와 김장미(22·우리은행)는 6~20일까지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열리는 제5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출전, 아시안게임 금메달 가능성을 점친다. 진종오는 추석 당일인 8일에 10m 공기권총과 9일 50m 권총 부분에 출전한다.

2010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50m 권총 단체전 금메달, 10m 공기권총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따낸 진종오는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첫 개인전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김장미는 9일 10m 공기권총, 10일 25m 권총에서 세계선수권 첫 메달 사냥에 나선다.

아시안게임 '금밭'인 한국 양궁의 오진혁(33·현대제철)과 여자 국가대표 정다소미(24·현대백화점)는 7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2014년 세계양궁연맹(WA) 월드컵 파이널에 초대돼 경기를 치른다.

오진혁은 지난해 월드컵 파이널에서 왕중왕에 올라 대회 2연패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 정다소미는 지난해 윤옥희(예천군청)의 우승에 이어 올해도 한국 여자 양궁의 위상을 높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아르헨티나 디마리아 1000억 가치 입증

독일전 1골 3도움… 최고 이적료 논란 깨끗이 씻어

아르헨티나의 앙헬 디마리아(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독일을 상대로 1000억원의 가치를 입증했다.

디마리아는 4일 독일 뒤셀도르프의 에스프리트 경기장에서 열린 아르헨티나와 독일의 평가전에서 1골 3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4-2 승리의 주역이 됐다. 아르헨티나는 2014 브라질 월드컵 결승에서 패배를 안긴 독일을 상대로 50여 일 만에 앙갚음을 했다.

디마리아는 부상으로 당시 독일과의 결승에서 뛰지 못했던 한을 이번 경기에서 푼 것과 동시에 최근 자신을 둘러싼 거품 논란도 한 번에 씻었다. 맨유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액인 5970만 파운드(약 1002억원)를 주고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디마리아를 데려왔다.



아르헨티나의 앙헬 디마리아(왼쪽)가 독일과의 평가전에서 자신의 도움을 받은 세르히오 아궤로의 선취골이 터지자 함께 기뻐하고 있다. /AP 뉴시스

그러나 유럽 축구계에서는 구단들의 이적료가 지나치게 올라갔다는 지적이 일고 있고, 맨유의 디마리아 영입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기도 했다. 또 디마리아는 지난 6일 맨유 유니폼을 입고 출전한 첫 경기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활약으로 맨유 팬들의 우려를 샀다.

하지만 이날 아르헨티나와 독일의 경기에서만은 디마리아의 존재가 단연 돋보였다. 그는 전반 20분 세르히오 아궤로(맨체스터 시티)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했고, 전반 40분 에릭 라멜라(토트넘)의 추가 골도 도왔다.

후반 2분에는 프리킥으로 페데리코 페르난데스(나폴리)의 헤딩골을 어시스트했다. 도움 해트트릭을 기록한 디마리아는 후반 5분 파블로 사발레타(맨체스터 시티)의 패스를 받아 독일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바이에른 뮌헨)의 키를 넘기는 슛으로 쐐기골을 성공시켰다.

0-4의 완패 위기에 몰린 독일은 후반 7분 안드레 쉬얼레(첼시)의 득점과 후반 33분 마리오 괴체(바이에른 뮌헨)의 골로 체면치레를 했다.

/유순호기자 suno@

프로야구 전적 4일

■ 목동

N C	020	000	021	5
넥센	240	200	32X	13

△승=밴헤켄(18승 5패) △패=이재학(9승 7패) △홈런=박병호 42·43·44·45호(1회2점, 4회2점, 7회1점, 8회2점) 이성열 13호(7회 2점·이상 넥센) 나성범 28호(8회2점) 김성욱 1호(9회1점·이상 NC)

■ 문학

롯데	000	001	401	6
S K	002	100	010	4

△승=옥스프링(8승 7패) △세=김승회(1패 17세이브) △패=전유수(5승 4패) △홈런=박정권 22호(4회 1점·SK) 손아섭 13호(6회 1점) 강민호 12호(9회1점·이상 롯데)

■ 대구

한화	000	000	000	0
삼성	100	011	01X	4

△승=윤성환(10승 6패) △패=앨버스(5승 9패) △홈런=조동찬 1호(5회 1점·삼성)

변하지 않는 맥주 맛과 품질위해 '혼신'

하이트진로, 성과 나타나… 수도권 주요 상권 매출 2배 이상 신장



"맥주의 맛과 품질은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이트진로의 최근 광고문구다. 하이트진로는 품질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최근 맥주의 품질관리 강화의지를 담은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수 년간 맥주의 품질혁신을 추진해온 하이트진로는 올 상반기부터 맥주시장 점유율 반등 등 품질혁신의 효과로 주목받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2011년 9월 선포한 경영혁신 주요 과제 중 품질혁신을 발표했다. 이후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에서의 다양한 혁신과제를 추진했으며, 최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이름만 빼고 다 바꾼' 뉴하이트를 출시한 후 취급률과 점유율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6월 말 수도권 주요 상권에서의 뉴하이트 취급률은 77%로 3월의 27%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다.

뉴하이트의 상승세는 대형마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A마트의 경우 뉴하이트의 점유율은 지난 4월 16.4%였다. 하지만 6월에는 20.0%로 매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 업체 내 하이트진로 맥주군(하이트·맥스·d 포함)의 점유율도 4월 31.5%에서 6월 36.3%로 크게 증가했다.

B마트에서도 뉴하이트가 4월 22.9%에서 6월 23.7%로 늘었으며, 전체 맥주점유율도 34.2%에서 39.1%로 급증했다고 하이트진로 측은 설명했다.

이런 성장에 대해 회사 측은 품질혁신이 주효했다고 강조했다. 변하지 않는 맛과 품질유지를 위해 생산부문과 유통부문에서 혁신과제를 추진한 것이 성과를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생산혁신을 위해 공동연구, 신기술 도입 등 꾸준한 R&D를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생산공정의 세계화를 위해 독일의 맥주전문 연구소인 한세베버리지와 공동연구를 해 오고 있다. 뉴하이트는 이번 공동연구의 첫 성과물이다. 2012년 상반기부터는 맥주의 신선도를 더욱 오래 유지시키기 위해 아이스 포인트 빙점여과공법과 산소차단공법을 적용해 왔다.

유통혁신을 위해 ▲SCM혁신 ▲생맥주관리사 ▲fresh365캠페인 등을 도입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2013년 9월부터 수요·공급망(SCM)혁신체제를 본격 가동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재고관리 과정을 줄여 유통기간을 앞당기는 등 유통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게 됐다. 생맥주 유통관리도 개선했다.

2012년 하반기부터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생맥주관리사' 제도를 도입했다. 생맥주관리사를 통해 생맥주의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이다.

하이트진로는 또 매년 상·하반기에 각 1개월씩 fresh365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하이트진로 전 직원들은 소매점과 식당을 방문해 품질유지기한이 지난 맥주를 교환해주고 맥주관리에 대한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맥주의 가장 기본사항인 품질을 세계화하기 위해 오랜 기간 다양한 혁신과제를 추진해왔다"면서 "최근 맥주시장에서의 점유율 반등은 그동안의 노력을 고객들이 인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맥주의 맛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이트진로의 품질혁신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품질경영을 강조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귀성길 무료 커피 드시고 여유있게~"

엔제리너스커피, 5일 오후 아메리카노 6천잔 제공

에스프레소 커피전문점 엔제리너스커피(대표 노일식, www.angelinus.co.kr)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함께 귀성객들을 위한 '무료 커피 시음회'를 벌인다.

행사는 5일 서울역 KTX 입구를 비롯해 대전·광주역 총 3개 역사에서 진행된다. 서울역과 대전역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각각 3000잔과 2000잔의 커피를 제공한다. 광주역에서는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1000잔의 커피를 준비해 전달한다.



엔제리너스커피 관계자는 "따뜻한 정을 나누며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한 무료 커피 시음회가 올해로 9년째를 맞이했다"며 "엔제리너스커피와 함께 더욱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엔제리너스커피는 한가위를 앞두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좋은 '추석 선물세트 3종'을 판매 중이다. 언제 어디서든 더치커피를 내려 마실 수 있도록 구성된 '더치세트 2종(대·소)'과 온도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매직 머그컵에 간편한 싱글백을 묶은 '싱글세트 1종' 이다. 오는 9일까지 엔제리너스커피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정영일기자

'푸르밀', 비피더스 라인업 강화

최근 식품업계에서는 슈퍼푸드를 활용한 제품들이 주목을 끌고 있다.

웰빙식품인 슈퍼푸드 중에서도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된 석류의 인기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석류의 인기를 반영하듯 외식품업계에서는 여성소비자들을 타깃으로 석류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석류를 원료로 한 식초를 배스킨라빈스는 석류 아이스크림을 출시하는 등 석류를 활용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으며 쉐라톤그랜드워커힐은 지난 가을 한정으로 석류 디저트 뷔페를 운영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늘어남에 발맞춰 유업계에서도 슈퍼푸드 석류를 활용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36년 전통의 유제품전문기업 '푸르밀(구 롯데우유)'은 주력브랜드인 '비피더스'의 신제품으로 '비피더스 석류'를 출시했다.



이 제품에는 위산을 통과해 장까지 살아가 장 정착률이 높아 변비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프로바이오틱 유산균 '비피더스'와 세계 특허 유산균 '루테리균'이 함유되어 있다.

푸르밀 측은 "이번 비피더스 석류 출시를 통해 사과·포도·매실·블루베리 등 기존 비피더스에 웰빙과일 석류가 추가되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며 "특히 최근 소비자들에게 인기 높은 석류가 함유된 비피더스를 통해 20~40대 여성들의 많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푸르밀 대표브랜드인 비피더스 집중 육성의 일환으로 건강한 원료를 함유한 신제품 출시를 통해 비피더스 라인업을 강화하고, 대표유산균 발효유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계획이다"이라고 설명했다.

푸르밀 비피더스 석류는 할인점과 슈퍼에서 만날 수 있으며 권장 소비자 가격은 할인점 기준으로 4380원이다. /정영일기자

고향 가는 길 '뷰티 파우치' 공개

자외선차단제·수분 에센스로 피부 건강 지키자

명절 연휴 장시간 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바뀐 환경으로 잠을 설치면 피부의 밸런스가 깨져 자칫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 올 추석 건강한 피부를 지켜주는 스마트한 뷰티 파우치를 공개한다.

올해는 이른 추석으로 날씨가 더운 탓에 차 안에서는 에어컨을 계속 틀 수 밖에 없다. 긴 시간 쐬는 차가운 바람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주범. 여기에 강렬한 자외선까지 더해지면 피부는 금세 망가진다. 오썸의 '미네랄 멀티케어 크림'은 미백과 자외선차단의 2중 기능성 제품으로 안전한 미네랄 성분이 UV A와 UVB를 동시에 차단한다. 유분감이 없는 산뜻한 제형으로 언제 어디서나 덧바르기 좋다.

바뀐 잠자리로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피부는 푸석푸석해진다. 오가닉 알로에 브랜드 A24의 '프리미엄 알로에베라 퍼펙팅 에센스'는 수분 공급의 제왕으로 불리는 알로에 베라와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는 스피루리나, 비타민이 풍부한 해조류 추출물 등이 피부 보호막을 형성해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세안 후 처음 바르는 부스팅 에센스로 끈적임 없이 스며들어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준다.



뾰루지가 올라왔다면 응급처치를 해줘야 한다. 진정 토너·세럼·압출기로 구성된 고운세상 코스메틱 '닥터지 에이클리어 3-스텝 솔루션'은 트러블 초기에 증상 악화를 막는 잇 아이템이다.

연휴 막바지에는 아로마 오일 마사지로 뭉친 근육은 물론 마음까지 풀어주며 일상 복귀를 준비하는 게 좋다. 아로마티카의 '라벤더 릴랙싱 마사지&바디 오일'은 라벤더·제라늄·마조람 에센셜 오일을 함유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준다. 100% 식물성 아로마 마사지 오일이라 입욕제로도 활용할 수 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뷰티업계 "요우커를 잡아라"

할인·선물 증정 프로모션



뷰티업계가 추석 연휴기간에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요우커'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헬스&뷰티 스토어 CJ올리브영은 6~9일 주요 관광 상권에 위치한 일부 매장에서 중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마스크팩과 헤어·스킨케어 등 100여 가지 인기 품목을 최대 50% 할인한다.

또한 중국인들의 관광 편의를 위해 서울의 주요 명소·지하철노선도·맛집 정보와 함께 다양한 할인쿠폰을 넣은 라이프스타일 지도도 무료 배포한다.

특히 CJ올리브영 라이프스타일 체험센터(명동 본점)에서는 구매 금액대별 기프트백을 증정한다.

한방 유아 스킨케어 브랜드 궁중비책은 롯데면세점 본점과 코엑스점에서 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물티슈를 선착순 증정한다.

또 50달러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효72 한방 순한 선크림'을, 150달러 이상 구매 시 '알로앤류' 기저귀 가방을 선물로 준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왕서방'의 지갑을 열기 위해 중국 은련카드와 제휴를 맺고 요우커에게 나눠줄 복주머니 2만개를 준비했다. 복주머니 안에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스네일 솔루션 샘플 제품과 5·10% 할인쿠폰이 들어 있으며, 배포는 은련카드 측에서 한다.

/박지원기자



놀이 즐기고… 경품도 받고…

롯데월드 어드벤처, 한가위 큰 잔치 열어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한가위를 맞아 가족과 함께 도심 속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신명나는 축제 한마당 '2014 한가위 큰잔치'를 개최한다.

◆강강술래 뛰고 공연도 보고~

먼저 이국적인 분위기의 테마파크 안에서 즐기는 우리의 전통놀이 '한가위 강강술래'가 펼쳐진다.

5일부터 9일까지 매일 오후 7시가 되면 신명나는 퓨전 국악 공연과 함께 지름 5m의 초대형 인공 보름달(라이트 애드벌룬)이 떠오른다. 보름달이 완벽하게 떠오르면 그 아래에서 100여 명의 국내외 연기자와 수백 명의 관객들이 함께 어울려 강강술래를 하며 소원을 기원하게 된다.

또 방자와 향단이 등 민속 캐릭터들이 벌이는 민속 놀이마당 '판'도 이색적인 재미를 선사하며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매일 오후 5시에는 '비보이와 국악인의 만남' 등 다채로운 한가위 특집 공연이 열린다.

◆한복 입으면 반값… 경품도

이와 함께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블랙야크와 함께하는 롯데월드 어드벤처 가고, 캠핑가고' 경품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벤트는 9월 한 달간 파크 입장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진행되며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총 150명에게 ▲헤리티지 텐트 세트 ▲스크린 돔 텐트 ▲키즈 팝업 텐트 등을 선물할 계획이다.

게다가 6일부터 10일까지 한복을 입고 방문하면 자유이용권 50% 우대 혜택(동반 3인 포함) 받는다. 5일부터 14일까지 국내에서 추석을 맞이하는 외국인들은 쿠폰을 지참하면 최대 52%까지 할인된다.

아울러 롯데카드 회원들은 9월 말까지 자유이용권을 1만 3000원에 구입할 수 있으며 동반 3인은 40% 우대받는다. 또 제휴를 맺은 신한·삼성·BC·NH농협카드 중 실적을 충족한 회원 역시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문의: 1661-2000

/황재용기자 hsoul38@

귀경객, 신라스테이에서 명절 스트레스 풀고 가세요~

빠른 휴일이지만 대체휴일제로 예년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오는 귀경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수도권 인근 호텔들이 합리적인 가격의 다양한 숙박 패키지를 선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경부고속도로 동탄IC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신라스테이(Shilla Stay) 동탄이 단연 인기다.

/황재용기자



경부고속도로 동탄IC에서 5분 거리… 재충전 도움

◆스트레스 한 방에 해소

신라스테이 동탄은 귀경객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경부고속도로 동탄IC 인근에 위치해 명절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위치해 접근성이 높고 그만큼 쌓인 피로를 풀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편리한 장점이 있다.

더욱이 신라스테이 동탄은 귀경객들을 위해 추석연휴에 이용할 수 있는 추석 패키지 2종을 준비했다.

먼저 추석연휴 동안 수고한 아내를 위한 '아내사랑 패키지'는 아내에게 소중한 하루를 선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스탠다드 객실에서의 1박과 아베다 미니 4종 세트(아쿠아 테라피 바디쏠트·핸드 릴리프·풋 릴리프·스무딩 바디 폴리쉬), 그리고 카페 아티제의 '비쥬 드 파리' 마카롱 세트가 포함돼 있다.

특히 편안한 객실에서 은은한 아로마 향의 아베다 미니 4종 세트로 명절의 피로를 풀 수 있으며 카페 아티제의 마카롱 세트는 아내에게 달콤한 시간을 선물한다. 패키지 가격은 13만 5000원(10% 세금 별도)이다.

또 객실에서의 휴식뿐만 아니라 보다 액티비티한 활동으로 명절의 스트레스를 풀기를 원하는 고객을 위한 '세컨드 버케이션(Second Vacation) 패키지'가 있다.

'또 한번의 여름 휴가'라는 콘셉트의 패키지로 추석연휴 야외 활동을 즐기고자 하는 연인, 가족에게 어울린다. 모던한 디자인을 자랑하는 Bar에서 와인 세트로 로맨틱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에버랜드에서 즐거운 데이트도 할 수 있다. 패키지는 스탠다드 객실에서의 1박과 와인 세트(와인&모둠 치즈), 그리고 모닝 뷔페 2인과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2매로 구성돼 있으며 가격은 19만9000원(10% 세금 별도)이다.

단 상기 추석 패키지는 5일부터 14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문의: 02)2230-3000·www.shillastay.com

연휴기간 당직 병원·약국 정상 운영

복지부·소방방재청 등 비상 근무체계 가동

정부가 추석연휴 기간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6일부터 10일까지 일선 의료기관·약국과 협력해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지역 의사·약사회와 협의해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을 지정·운영키로 했으며 전국 549개 응급 의료시설 역시 24시간 근무한다. 또 다수 민간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전후 3일간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국공립 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특히 우리 동네에서 문을 연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전화·인터넷·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에서는 전화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정보센터(www.1339.or.kr) ▲중앙응급의료센터(www.e-gen.or.kr) ▲복지부(www.mw.go.kr) 등과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다운받으면 손쉽게 의료기관과 약국을 찾을 수 있다. '명절 병의원찾기'나 '명절 약국찾기'를 이용하면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가까운 응급·당직 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의 위치가 지도로 보여지며 진료 시간 등의 정보도 조회할 수 있다.

게다가 이번 추석부터는 연휴 기간에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응급환자 처치·이송과 전문의 질병 상담, 병원·약국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비상 근무체계에 돌입한다.

119로 전화하면 문을 연 병원과 약국을 쉽게 안내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응급처치 상담 및 구급차 출동 요청 등 모든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전국 소방본부에 있는 18개 119 구급상황센터에 비상 전화기 98대를 추가하고 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등 121명의 인원을 보강했다.

또 소방방재청은 귀성객이 많이 모이는 역과 터미널 등 다중 밀집장소에 119구급대와 구조대를 전진 배치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황재용기자

색다른 축제 즐겨볼까?

평창효석문화제 등… 전통놀이로 재미 더해



/이효석문학선양회 제공

이른 추석이지만 대체휴일제로 황금연휴가 된 만큼 여행이나 나들이를 계획하는 가족들이 많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색다른 한가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전국 축제의 현장을 소개한다.

◆메밀꽃의 장관이 펼쳐지는 봉평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인 강원 평창군 봉평면 효석문화마을에서는 '평창효석문화제'가 열린다. 축제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아름다운 메밀꽃밭을 배경으로 펼쳐지며 고향 체험과 소설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메밀꽃밭 체험이 가능한 소설존이 마련되고 ▲이효석 길 ▲메밀꽃 필 무렵 길 ▲메밀꽃 사진 길 등의 테마로 구성된 테마존을 만날 수 있다. 또 소설 속 나귀 체험과 소설 체험북 제작, 출발! 소설 탐험대 등의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특히 올해는 섶다리 체험 공간이 물가동네로 꾸며져 쉼터의 기능을 하며 사연과 음악 신청을 하는 물가동네 DJ음악실도 운영된다. 게다가 마당극과 거리 상황극이 소설을 입체적으로 재탄생시키며 감성 콘서트와 야간 영화 상영,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가을의 별미, 홍성 대하축제

충남 홍성군에서는 '홍성남당항 대하축제'가 개최된다. 홍성읍 서쪽에 자리한 남당항은 새우, 꽃게 등 다양한 어종이 풍부한 청정 어항으로 9월 초순부터 10월까지는 대하의 담백한 맛과 구수한 향이 가득차는 곳이다.

우리나라 최대의 대하축제인 만큼 축제에서는 생새우를 비롯해 대하 소금구이, 대하찜 등 다양한 대하요리를 실컷 맛볼 수 있다.

더욱이 올해는 단순한 먹거리 축제에서 벗어나 대하잡기, 대하까기 등의 대하 관련 체험 행사와 갯벌에서 조개를 잡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경험할 수 있다. 또 풍어제와 어선 퍼레이드와 함께 관광객 노래자랑 등의 색다른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홍성군은 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해 맛 좋은 대하를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다.

◆도심에서 즐기는 한가위 잔치

축제는 서울 도심에서도 이어진다.

먼저 남산골 한옥마을은 8일과 9일 이틀간 '오(五)대감 한가위 잔치'를 진행한다. 한가위의 의미를 되새기고 전통문화로 온 가족이 하나되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통놀이는 물론 다양한 전통문화 프로그램이 추석선물로 준비된다.

또 한국관광공사는 4일부터 9일까지 청계천에 위치한 관광공사 사옥 내 관광안내전시관에서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를 연다. 윷과 투호, 제기 등의 전통놀이를 비롯해 한복 입고 사진 찍기, 꼬마장승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게다가 관광공사는 윷놀이 참가자들에게 복주머니를 증정할 예정이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전 세계를 뒤 흔드는 웨스트엔드 흥행 대작
미치도록 매혹적이고 정열적인 뮤지컬
ZORRO®
THE MUSICAL
2014.08.27 ~ 10.26 충무아트홀 대극장
Thanksgiving Zorro Day 50% 할인!
추석연휴인 9/6~9/10 공연에 한하여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김봉환 이희정 서영주 이정열 조순창 김우형 휘성 박성환 Key 양요섭 서지영 소냐 안시하 김여진
| 프로듀서 김선미 | 연출 왕용범 | 음악감독 이성준 | 안무 홍유선 | 무대디자인 서숙진 | 조명디자인 민경수 | 음향디자인 양석호 | 분장디자인 양희선 | 의상디자인 김지연 | 영상디자인 박준 | 소품디자인 김상희 |
주최 충무아트홀 이데일리 투자 하나투어 제작 (주)엠뮤지컬아트 CJ E&M 협찬 LOUNG 예매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하나 Free 티켓 1566-6668 문의 (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CLIP service 1577-3363
FEATURING THE WORLD FAMOUS HITSONGS OF THE GIPSY KINGS | BASED ON AN ORIGINAL STORY BY ISABEL ALLENDE
BOOK AND LYRICS BY STEPHEN CLARK MUSIC CO-COMPOSITION / ADAPTATION, ORCHESTRATIONS AND ARRANGEMENTS BY JOHN CAMERON
ORIGINAL PRODUCTION CO-CREATED AND DIRECTED BY CHRISTOPHER RENSHAW
EXECUTIVE PRODUCERS; JOHN GERTZ, ADAM KENWRIGHT AND NANCY LARSON, GENERAL MANAGEMENT BY WILLEM METZ
WMM

라이엇 게임즈의 한국 문화재 사랑

서울문묘·성균관 디지털 원형기록 구축
고종황제·이준열사 서예글씨도 사들여

지난 6월 남한산성이 한국의 11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다시금 우리 문화재에 대한 조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문화재 보호와 관리에 관심이 부쩍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중한 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는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최근 남한산성의 성곽 곳곳이 훼손된 채 방치돼 있고 인근에는 노점상이 줄지어 들어서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일반 기업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외국계 기업의 유별난 한국 사랑

이런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적극적인 민관협력으로 문화재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이 세계적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롤)'를 서비스하고 있는 라이엇 게임즈(한국대표 이승현)다.

라이엇 게임즈는 2012년부터 문화재청(청장 나선화)과 '한 문화재 한 지킴이' 협약을 맺으며 활발한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문묘와 성균관 3D정밀측량 사업, 서울문묘와 성균관 내 곳곳에 있는 안내판을 개선하는 작업 등을 잇따라 하며 화제를 낳았다.

서울문묘·성균관 3D정밀측량은 문화재청과 협력아래 약 9개월간 건물에 대한 3차원 레이저 측량과 영상콘텐츠 제작 등을 실시한 사업이다.

라이엇 게임즈의 노력으로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디지털 원형기록이 구축됨으로써 재해로 인한 훼손이나 소실 시 그대로 복원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게 됐다.

또 3차원으로 저장된 데이터는 디지털 세대를 위한 역사교육 콘텐츠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사적지의 지형은 물론 각 구조물의 질감과 색감 등이 매우 정교하고 입체적으로 기록돼 현장에 직접 가보지 않고도 감동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

또 라이엇 게임즈는 서울문묘 및 성균관 내 곳곳에 위치한 안내판을 개선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곧 일반 관람객도 실용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의 안내판을 만날 수 있다.

◆해외 문화재 반환 적극

한편 라이엇 게임즈는 지난 8월 22일 문화유산국민신탁과의 긴밀한 노력 끝에 대한제국시기 고종황제와 위인들이 남긴 문화유산의 매입에 성공했다.





이승현 라이엇 게임즈 한국 대표와 나선화 문화재청장이 '후원협약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왼쪽) 고종황제 어필 '선우후락'. /라이엇게임즈 제공

고종황제의 어필인 '선우후락', 이준 열사의 말년 서예 작품인 '왕몽' 등 총 7가지의 귀중한 문화재를 구입했다.

라이엇 게임즈의 문화재 반환 사례는 또 있다. 지난 1월 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 문화재청과 협력하에 미국 버지니아주 노포크 소재의 '허미티지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던 조선시대의 희귀 불화인 '석가삼존도'의 국내 반환에 성공해 큰 화제를 모았다.

해당 불화는 1730년대 작품으로 일제시대에 국외로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가로 세로 길이 3m가 넘는 비단에 석가모니 등 불교를 상징하는 여러 인물이 채색돼 있는 등 조선불화로서 비교적 규모가 크고 현존 불화 중 도상의 배치가 희소해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플레이어 중심' 경영 철학

라이엇 게임즈는 '플레이어 중심'이라는 기업 경영 철학 아래 한국 진출 시부터 국내 플레이어들과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과 역할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 왔다.

2011년 말 한국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부터 한국적인 문화를 담은 구미호 전설 기반의 챔피언(게임 캐릭터) '아리'를 선보였고 한국 지사 설립과 동시에 '아리'에 대한 초기 6개월 간의 판매 금액 전액을 한국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후 6개월 판매금액에 자사의 기부금을 더해 총 5억원을 기부했다. 해당 금액을 바탕으로 국립 고궁 박물관의 조선시대 왕실 유문 보존 작업과 편의, 교육시설 지원 등을 했다.

올해에도 행보는 꾸준히 이어져 라이엇 게임즈는 지난달 22일 덕수궁 중명전에서 진행된 문화재청과의 후원협약식에서 핵심 프로젝트에만 총 7억4000만원을 투입하는 대규모의 후원 계획을 공개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이젠 액션 퍼즐이다

신개념 모바일게임 '닥터몬토' 출시

새로운 메커니즘의 액션 퍼즐게임이 등장했다.

마그네틱스톰즈는 퍼즐 모바일게임 '닥터몬토'를 정식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마그네틱스톰즈의 첫 모바일게임인 '닥터몬토'는 3매칭 퍼즐 플레이와 슈팅 액션이 결합된 방식이다. 호기심 넘치는 퍼즐과 몬스터를 제거하는 액션의 쾌감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게이머는 같은 컬러의 캡슐을 3개 이상 연속 배치할 경우 만들어지는 '마그네틱 필드'를 확장시켜 몬스터를 제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순발력과 두뇌 플레이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

구글플러스에 접속해 다른 게이머들과 득점 랭킹 경쟁을 벌이는 것도 가능하다.

닥터몬토는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최강의 군단'으로 LoL 잡는다

에이스톰, 액션 MMORPG 26일 OBT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아성을 무너뜨리겠다."

'던전앤파이터' '사이퍼즈'로 유명한 김윤종 사단의 액션 완결작 '최강의 군단'이 이같은 출사표를 던졌다.

온라인 게임개발사 에이스톰은 서울 서초동 넥슨아레나에서 액션 MMORPG '최강의 군단' 출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26일 공개서비스(OBT)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최강의 군단'은 김 사단의 핵심 개발자들이 만든 게임으로 마우스 만으로도 모든 액션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4대4로 전투를 벌이는 PvP(플레이어 간의 대결) 모두인 MFL(Monday Fight Live)를 추가해 15분 이내에 플레이를 끝낼 수 있다. 전직이나 미션 달성, 아이템 획득과 같은 PvE(플레이어와 게임 인공지능간의 대결)플레이를 통해 MFL캐릭터와 캐릭터의 테크닉을 확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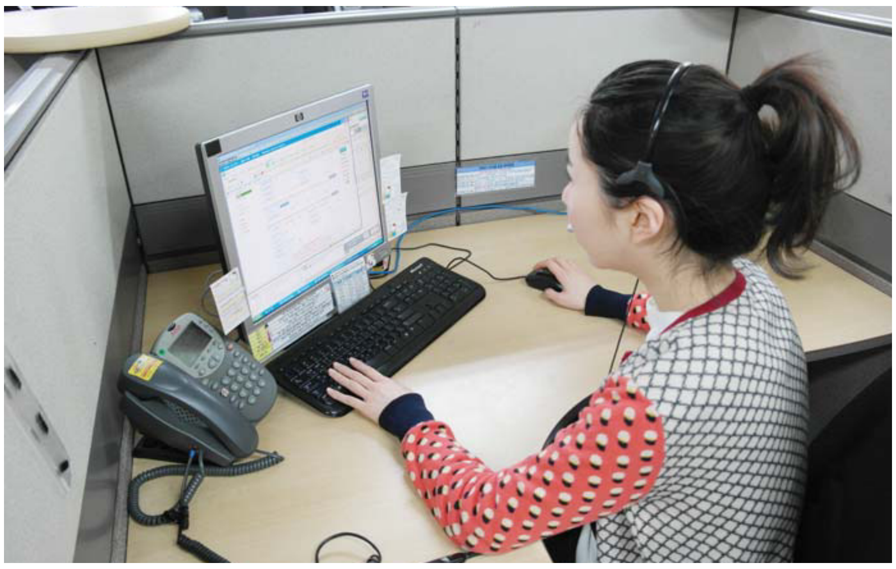


이번 OBT에는 36개 캐릭터와 50개 필드, 31개의 던전이 등장한다.

김윤종 에이스톰 대표는 "'최강의 군단'의 유저가 충분히 확보되면 e스포츠화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국내 게임시장에서 독주하고 있는 LoL과 맞설 수 있도록 게임성을 충분히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강의 군단'은 25일까지 사전가입자 전원에게 MFL캐릭터인 '하임달'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하임달'은 MFL캐릭터중 획득 난이도가 가장 높은 캐릭터중 하나라고 에이스톰은 설명했다.

/이국명기자



번호 하나면 정부업무의 모든 사항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콜센터)'를 소개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 이성보)가 운영하는 110 콜센터는 국민이 궁금한 일, 불편한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110 콜센터에서는 상담사가 일반적인 행정민원은 직접 상담종결 처리하고,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기관으로 연계하고 있다.

주요 민원으로는 ▲지방세나 근로장려금 등 세금 ▲주민등록등초본과 같은 행정민원 ▲방과 후 돌봄서비스등 교육정책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을 누르면 전화상담과 휴대전화 문자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화 민원상담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가능하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병원·교통 문의도 '척척'… 110 누르세요

정부부처 콜센터 110으로 단일화… 원스톱 상담서비스

◆추석에도 110…병원·약국·교통상황 등 상담

110 콜센터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인 7~10일에도 정상 운영한다.

추석명절에 특히 많은 문의가 예상되는 고속도로나 국도의 교통정체 상황과 대중교통 운행 시간, 불법주차 단속문의, 지역별 날씨 등 각종 귀성정보가 제공된다.

긴급 의료서비스·진료 가능한 병원과 약국의 위치 정보, 지역 문화행사 등 다양한 생활정보에 대한 상담과 안내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야간 근무수당 미지급건 신고 방법 문의 ▲신분증 분실 문의 ▲창업자금 대출 가능기관 문의 ▲재산세 납부방법 문의 ▲소음 단속 문의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상담이 진행된다.

연휴기간 동안 상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업무시간이 지난 후 오는 전화는 상담사가 다음날 근무시간에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답해주는 콜백서비스가 제공된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국도 등 교통상황, 문화행사, 연휴기간 중 운영 병원 및 약국, 대중교통 등의 상담이 많았다.

이밖에도 ▲부정유류 신고방법 문의 ▲주민등록증을 분실 ▲창업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관 ▲근로장려금 통지서 분실, 환급 방법 ▲추석연휴 구치소 접견 방법 ▲스미싱·보이스피싱 피해신고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에 대한 정부지원 문의 ▲재산세 금액 조회 및 납부 방법 ▲공원 인근 축제 및 행사로 인한 소음 단속 문의 등이 잇달았다.

◆정부 콜센터 110번으로 통합

부처별로 운영하던 정부 콜센터 '민원전화'가 110번으로 통합됐다.

110 콜센터는 지난달 27일 해수부·교육부·농식품부·권익위 등 4개 정부부처 콜센터의 대표전화 번호를 110번으로 통합했다.

현재 41개의 부처에서 96개의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은 민원이 있어도 전화번호를 기억하기 어렵고 어디로 전화를 해야 할지 알기 어려웠다.

이에 권익위 콜센터는 각 부처 콜센터마다 별개의 대표번호를 운영하는데 따른 국민불편과 재정운용상 비효율성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지난 3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과천청사내에 입주한 11개 정부



콜센터의 대표번호를 110번으로 단일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권익위를 포함해 교육부·농식품부·해수부에 문의사항이 있는 국민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으로 전화하면 필요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4개 부처를 추가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그간 운영해온 기존의 콜센터 대표번호도 일정기간 계속 병행운영해 번호단일화에 따른 국민들의 혼선과 불편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앞서 110 콜센터는 이번 대표번호 단일화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정부콜센터 대표번호 110 단일화 출범 기념식'을 개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 누구나 110번만 기억하면 정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민중심의 범정부콜센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표번호 단일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상부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다양한 계층을 위한 민원상담 서비스

청각·언어장애인도 주민센터나 보건소 등 전국의 공공행정기관을 보호자 없이 혼자 방문해도 민원을 상담받을 수 있다.

110 콜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화상수화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화상수화 통역서비스는 일선 민원현장(행정기관)에서 농아인과 담당 공무원의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수화통역업무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와함께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채팅 전화상담과 트위터(@110callcenter), 페이스북(110call) 및 온라인 채팅·수화상담(m.110.go.kr)을 통해 실시간 상담도 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화상·채팅 상담 서비스는 일반 전화기를 이용할 수 없는 청각·언어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면 누구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10 콜센터는 SNS를 통해 다양한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트위터 팔로워 수가 9580명에서 현재 1만6493명으로 72%가 증가됐다. 또한 페이스북 친구도 2011년도 478명에서 6583명으로 증가하는 등 국민들과 소통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권익위 110콜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215만 건에 달하는 많은 상담건수와 고객만족도를 고려한다면 110 콜센터가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빠른 상담을 통해 국민들의 편익 증진에 힘쓰고 국민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물국회'인데 선물은 '산더미'



기자 수첩
조 현 정
<정치사회부 기자>

국회 파행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의원회관에는 추석 선물들이 쇄도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더미처럼 쌓인 선물 상자는 명절 때면 늘 있는 풍경이지만 이번 추석은 보기가 달갑지 않다. 세월호 정국에 가로막혀 몇 달 간 법안 처리에 아무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국회가 아직까지 '올스톱' 상태이기 때문이다. '식물 국회'나 다름없지만 일 안 해도 월급이 나오는 의원들이 추석 선물까지 챙긴다는 비판은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다.

200여 가지가 넘는 특권도 모자라 공공연하게 뇌물성 선물을 받아도 징계나 처벌도 없다. 이러니 국민의 시선은 고울 리 없다. 일명 '김영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은 있으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면 형법상 처벌할 수 없었던 떡값 등을 받은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도입되더라도 이 같은 명절 풍경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에서 제재하고 있는 금품이나 선물 수수 기준은 '100만원 이상'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앞으로 오는 선물은 전국 각지에서 보내 온 지역 특산품이 주를 이루고 있어 법의 제재를 받을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명절을 앞두고 정국은 꽉 막혀 풀리지 않고 있는데 국회로 온 선물들은 일사천리로 배달되고 있다. 이번 추석에는 의원들이 선물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지 자성이 절실해 보인다.

'증권사 찌라시' 문화 개선돼야



기자 수첩
김 현 정
<경제산업부 기자>

국내 주식시장이 각종 규제 개선과 활성화 대책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증권가의 찌라시 문화 개선이다.

하루에도 많게는 수십개의 찌라시 메시지가 인터넷 메신저나 모바일 채팅창을 통해 오간다.

각 업계의 유용한 동향도 담겨 있지만 유명인이나 연예인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관련 루머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

문제는 과연 찌라시의 정확도를 얼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다. 실제 사실이라해도 대중의 '알 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사이에서 찌라시를 통한 정보 유포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텐데. 혹여라도 악의적으로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허위 사실이나 음해성 루머를 조직적으로 퍼뜨린다면 어디에서 찌라시 유포자를 찾아 책임 소재를 물어야할지 애매해진다.

이런 찌라시 문화는 결국 치고빠지는 작전세력에 의해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일반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투자를 외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또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투자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을 버릴 수 없게 하는 원인이 된다. 악의적인 소문 유포로 기업 주가를 끌어내리고 정상적 영업활동을 방해한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국내 증시의 선진화 첫 걸음은 투자자들의 책임감 있는 찌라시 문화 형성에서 시작되는게 아닐까.

한미 연합사단 내년 편성

여단급 전투부대 재편… 미 2사단장이 지휘

한국과 미국은 전시에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한·미 연합사단'을 내년 초에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4일 최윤희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 연합사령관이 최근 전술적 수준의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전시에 임무를 수행하는 한·미 연합사단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미 2사단을 모체로 편성되는 연합사단은 참모 요원 편성과 작전 계획 수립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초에 임무수행 체계가 구축된다.

국방부는 연합사단은 의정부에서 편성되지만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미 2사단이 평택으로 이전하면 자동으로 의정부에서 평택으로 사단본부가 이전된다고 설명했다.

사단장은 미 2사단장(미군 소장)이, 부사단장은 한국군 준장이 각각 맡고 30여 명의 참모 요원은 한국군과 미군으로 동등하게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2사단장이 '연합사단장'이란 모자를 쓰는 형식으로 직위를 겸직하게 된다.

연합사단은 평시에 한국군과 미군으로 편성된 참모부 조직을 운영하다가 전시에는 한국군 전력을 주축으로 미 2사단 전력 일부 합류, 예하에 1개 한국군 기갑여단을 편성하게 된다. 전쟁이 발발하면 미 2사단과 한국군 1개 기갑여단이 연합사단을 편성해 전술적 수준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 사단은 전시에는 북한 지역에 대한 민사작전과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 제거와 같은 특수 임무도 수행하는 방향으로 작전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굳은 표정의 새누리 지도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운데)와 이완구 원내대표(왼쪽), 서청원 최고위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조현룡·박상은·김재윤 의원, 오늘 일괄기소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된 새누리당 조현룡·박상은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5일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진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박 의원을 5일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당초 박 의원을 이날 기소할 계획이었으나 조현룡·김재윤 의원과 같은 날 재판에 넘기기로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조 의원을, 특수2부는 김 의원을 5일 각각 구속기소한다. 이들 의원은 지난달 21일 나란히 구속수감됐고 구속기한이 오는 9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다.

박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5억9000만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에 숨겨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범죄 사실은 모두 11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0억원이 넘는다.

조 의원은 궤도부설업체 삼표이앤씨에서 1억6000만원을, 김 의원은 청탁입법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로부터 5000여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다.

3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구속영장은 국회 표결 결과가 법원에 도착하는 대로 기각될 전망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이미 기각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신학용 의원의 경우 뇌물을 건넨 SAC 김민성 이사장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 /조현정기자

뉴스&뉴스

당정, 쌀 고정직불금 인상 의견 조율

●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국회에서 예산 당정협의를 열고 쌀 관세화 대책 등 내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쟁점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쌀 고정직불금 인상안을 포함한 관세화 대책을 논의하고 '싱크홀'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노후 상수도 교체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대통령 주치의 이병석 교수 사의

● 연세의료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치의를 맡아왔던 이병석 산부인과 교수가 일신상의 이유로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서울대병원에 새로운 대통령 주치의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 안전진단' 제도화… 국민이 신고하면 조치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을 국민이 신고하면 관리 당국이 이를 점검하고 조치한 후 결과를 공개하는 '참여 안전진단'이 제도화된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 부처 합동 과도기 안전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참여형 안전 대진단 실시 ▲재난 현장대응 역량 강화 방안 ▲정부조직 개편기 재해 예방 대책 등을 담았다.

안전 대진단은 사회 전반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의 요청에 따라 관리 당국이 안전 점검을 실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처리 경과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소방방재청이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주민 신고를 받고 있지만 아직 참여가 저조하고 사후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국민이 손쉽게 위험 요인을 신고하고 처리 경과도 볼 수 있는 안전신고포털 '안전신문고'(가칭)를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구축 전까지는 안전디딤돌, 도로이용불편신고(국토교통부), 생활불편신고(안행부) 등 안전 신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를 접수한다. 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그 하위 법령에 포상금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현정기자

차도 줄여 '보행친화 도시'로

서울시 '4개년 계획' 발표…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 확충하기로

서울시가 2018년까지 서울 사대문 안 차선을 줄여 '보행친화도시'를 만든다.또 국·공립 어린이집도 늘리고 학교 화장실도 개선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신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사람이 중심인 서울'과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목표로 8조 4053억원의 예산을 투입, 안전·복지·경제·재생 등 4가지 분야 25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시는 우선 2018년까지 청계천, 대학로, 세종대로 등 지하철이 밀집한 12개 도로에서 1~2개 차도를 줄여 총 15㎞의 차도를 없애기로 했다.

줄어든 공간에는 자전거 도로, 인도 등이 조성된다.

또 학교 내 빈 공간 등을 활용해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개 더 늘려 4만 명을 추가로 수용하고 학교 변기의 48%를 차지하는 재래식 변기는 모두 양변기로 교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55개 재난유형별로 황금시간(골든타임, 초기구조가능시간) 목표제를 도입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을 크게 늘린다.

복지 분야에서는 동주민센터를 마을복지센터로 이름을 변경하고 '찾아가는 복지'를 강화한다. 사회복지사 인력을 2018년까지 2000명, 방문간호사는 450명 더 늘린다.

성장동력 발굴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창조경제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에 따라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에이징 클러스터'가 2017년 홍릉에 생기며 창동·상계동 38만㎡ 일대는 문화상업중심지역으로 만들어 수도권 동북부 광역중심지로 육성한다.

시는 도시재생사업에는 총 2조원을 투자한다. 올해 말 철거예정인 서울역 고가도로는 녹지공원으로, 마곡지구 중앙공원은 자연과 문화가 접목된 보타닉공원으로 각각 조성한다.

서울시는 20일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시정계획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해 11월 중 시정 계획을 확정한다.

/이정우기자 cyclone@metroseoul.co.kr



약수고가도로 철거 완료…통행 재개 서울시가 약수고가도로 철거를 완료해 4일 오전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다. 1984년 12월 설치된 약수고가는 서울 강남과 강북을 오가는 차량의 빠른 이동을 위해 설치됐지만,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약수사거리 일대의 상권을 침체시킨다는 지적도 받아오면서 7월 20일부터 철거작업에 들어갔다. 왼쪽은 7월15일 약수고가도로. /연합뉴스

세월호 현수막 뗀 사람은 동네 상인

안산시내 곳곳에 걸린 세월호 관련 현수막을 떼어낸 의문의 남성들은 동네 상인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거리에 부착된 세월호 관련 현수막을 철거해 버린 혐의로 인근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이모(52)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씨는 다른 상인 2명과 함께 지난달 26일 오전 3시7분께 안산문화광장 가로수에 걸려있던 세월호 관련 현수막 24개를 떼어낸 뒤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다.

함께 붙잡힌 나모(49)씨는 고잔동 주택가 놀이터 가로수에 설치된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 요구 현수막을 라이터로 줄을 끊어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 등 3명은 세월호 사고 후 영업이 안돼 화가 나 현수막을 뗐으며, 나씨는 세월호 사고 후 동네 주민이 우울해 하는 것 같아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우기자

'1세대 기업 사냥꾼' 이성용 또 사기 치려다 덜미 잡혀

'기업형 1세대 작전 세력'으로 악명을 떨쳤던 이성용(51)씨가 또 기업의 등을 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이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자금난을 겪는 모 유통업체에 20억원을 대출받아 주겠다며 계약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이씨는 1998년 1000억원대의 위장 수출 사기극을 벌인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현정기자



서울지방우정청, 무료급식 봉사활동 서울지방우정청은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인정복지관 만나샘에서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친 가운데 직원들이 배식 준비를 하고 있다. /서울지방우정청 제공

'짝퉁 고량주' 4800병 유통

중국산 저가 술에 물 타 만들어 판매한 일당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량주의 '짝퉁'을 수천병 만들어 판 혐의(상표법·식품위생법 위반)로 이모(4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4~6월 중국산 L 고량주 빈 병에 물과 알코올 도수가 높은 중국산 저가 술을 섞는 수법으로 가짜 제품 4800여 병(4000만원 상당)을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다.

이들은 L 고량주가 중국 동포 사이에서 인기를 끌어 지난해 말부터 판매가 급증하자 가짜를 만들어 판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고량주는 경기 안산, 서울 구로구 등 중국 동포가 많은 지역의 슈퍼마켓, 중국 음식점, 주점 등에 공급됐다.

경찰은 "가짜 술이 만들어진 컨테이너 박스는 페인트통과 부자재가 가득 쌓여 있는 등 위생 상태가 불량했다"며 "제조 과정에서 불순물이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jhj@

"자사고 평가결과 8곳 기준 미달"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4개교 중 8개교가 평가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자율형 사립고 14개교에 대한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8개교가 기준점수에 미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이어 "기준 점수 70점(100점 만점)에 미달한 8개교는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10월에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도 덧붙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이 8개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를 신청할 경우 곧바로 반려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지정취소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기회에 오는 정기국회에서 자사고 존폐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삼아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정우기자

서울사이버대 '부동산시장의 손자병법' 개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부동산학과 주최로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손자병법과정'을 개설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강의는 오는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본교 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특강은 서울사이버대 부동산학과 박찬웅 교수의 강의로 진행된다.



교육은 실질적 이론과 경험을 기반으로한 분석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투자의 최소기준(9월 20일) ▲장기간의 불황, 누구를 절벽으로(9월 27일) ▲비틀어봐야 황금시장이 보인다(10월 4일) ▲부동산가치가 더 떨어져 좋은 시장(10월 11일) 등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특강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홈페이지(estate.iscu.ac.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비용은 교재·다과비 포함 기초운영 비용 3만원이다.

metro global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Russia



В американской версии «Звонка» девочку звали Самара

Откроется музей героини «Звонка»

Хоррор-мифология. В «Музее Садако Ямамуры» петербуржцы смогут отметить Хеллоуин в японском стиле

АННА ГАМЗИКОВА

Цитата

«Люди придут не только посмотреть, но и поучаствовать – будет театрализованная программа».

Елена Кабачинская

Факты

«Музей Садако Ямамуры» включён в программу XI Ежегодного фестиваля «Японская осень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metro HongKong



逾半香港人不知伴

一項調查發現，大多數香港人在結婚時對另一半的債務狀況都不甚了解。在受訪者中，58%對伴侶的財政狀況所知不多，甚至一無所知，而且不放心向伴侶透露自己的財政狀況。

香港信貸資料機構環聯對500名成年人進行網上調查，結果發現僅32%的香港市民表示對伴侶有足夠的信任，可以放心討論自己的信貸狀況。73%的受訪者有跟伴侶一起制定財務計劃。19%認為婚後才會跟伴侶討論個人財政狀況。然而，22%受訪者表示即使已經結婚，他們仍然希望維持財政獨立。

▲一項調查發現，
債務一無所知。

香港環聯
查顯示，香港市
財政，特別是
全感。他建議，
論彼此的財政及
婚後出現財政問

배우자 재정상황 모르고 결혼

상당수 홍콩인이 결혼할 때 배우자의 재정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신용정보기관인 판게아사는 최근 홍콩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58%는 배우자의 재정 상황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하거나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일부는 자신의 재정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불안하다고 밝혔다. 배우자를 신임해 자신의 신용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응답자는 32%였다.

metro Brazil



emanda por
nico no país

'보장된 고수익' 전문기술직 열풍

브라질에서 전문 기술직에 종사하려는 열풍이 일고있다. 브라질 국립 직업 훈련센터에 따르면 전문 기술 과정 수업 등록자 수가 2010년 200만~300만 명이었던데 반해 올해는 400만명을 기록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훈련센터 관계자는 "토목 등 전문 기술직 분야는 일자리가 많을 뿐만 아니라 급여 조건이 좋다"고 설명했다. 주요 기술직 평균 보수는 2539 헤알(약 115만원) 수준이다.

공포영화 '링' 주인공 박물관에 왜?

일본 전통문화·신화 소개 이색 전시회… 기모노·소복 등 눈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립 조각 박물관에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일본의 유명 공포 영화 '링'을 모티브로 한 이색 전시회 '사다코의 박물관' 때문이다.

시립조각 박물관 관계자 엘레나 카바친스카야는 "이번 전시회는 '제4회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만나는 일본의 가을'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사다코의 박물관 전시회의 공식 개막일은 10월 31일 할로윈데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시회의 테마는 일본 공포 영화 '링'의 주인공 야마무라 사다코"라며 "러시아 사람들에게 영화에서 본 사다코를 통해 일본의 전통문화와 신화에 대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사다코의 일기장, 기모노, 소복, 장난감 등이 전시된다"며 "영화 속에서 나온 듯한 사다코를 직접 만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시회를 사전 관람한 한 관계자는 "유명 공포 영화를 모티브로 해 일본의 문화를 소개하려는 기획 의도가 돋보인다"며 "전시회를 통해 일본의 신화와 민담에 관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전시실 한 가운데에 앉아있는 사다코를 봤을 때는 심장이 철렁했다. 정말 무서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카바친스카야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소복을 입은 여자 귀신이 이야기나 그림 속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낯설지 않다"며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그렇지 않다. 전시회가 시작되면 많은 관람객이 놀라게 될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민담과 전래동화에 나오는 마귀할멈 '바바야가'가 가장 무서운 귀신으로 꼽힌다.

바바야가는 숲속에 살며 어린 아이들을 잡아 먹는다고 전해진다. 러시아 어린이들은 잘못을 저지르면 바바야가가 자신을 잡으러 온다고 믿는다. 바바야가는 러시아 민담뿐만 아니라 슬로바키아와 체코의 이야기에도 등장한다.

/안나 감지코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metro France



Rythmes scolaires : le "boy
maires qui va chahuter la r

RENTREE SCOLAIRE – A la veille de la rentrée scolaire pour
la réforme contestée des rythmes scolaires fait toujours des r
communes. Plusieurs maires ont en effet décidé de boycotter
supplémentaire mercredi matin.

La réforme des rythmes scolaires est censée s'appliquer cette année dans la
totalité des 24.000 communes qui possèdent une école en France.

초등학교 새학기 주5일제 적용 논란

프랑스에서 학기가 새로 시작됐지만 수업 리듬 개혁을 두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 주 4.5일 수업을 골자로하는 수업 리듬 개혁을 시행한 바 있다. 2008년 사르코지 대통령이 시행했던 주4일 수업안(수요일 휴교)을 바꾸겠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수요일을 교외 수업으로 대체하는 이 개혁안에 대해 비난의 여론이 높아지자 올 9월 새학기부턴 주 5일 아침 수업안이 적용됐다. 초등학교에서 주 5일을 빼놓지 않고 아침 수업을 진행하는게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도시별로 찬반 입장이 다양한 상황이다. 에손느의 시장은 강한 반대의사를 나타내며 "학교를 걸어 잠그겠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다. 이번 개혁안은 총 2만 4000개의 코뮌에 적용되며 수요일과 토요일 중 하루는 추가로 학교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교사들도 수업 준비를 해야된다.

다만 개혁안을 반대하는 시장을 둔 지역은 주5일제를 무시하고 기존의 방식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교육 활동이 정해지지 않은 학교도 많다. 오전 수업 후 오후엔 과외 활동 시간이 있지만 그에 걸맞는 체험 학습 준비는 미미한 실정이다.

한편 브노아 아몽 전교육부장관은 새롭게 내정된 나자트 발로벨카셈 교육부장관을 겨냥해 "총 20여개 코뮌에서 개혁안을 보이콧할 것이라 밝혔다. 모든 개혁안엔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법이다. 대다수 지역에선 새로운 개혁안을 따라줄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줄리 멘델 기자·정리=정주리 인턴기자



매일 아침 흔들리는 우리는 직장인입니다.
초근접 직장 리얼리티
오늘부터 출근
매주 | 토 | 밤 11시 10분 tvN / 9월 20일 첫방송

market index <4일>

지표	지수	등락
코스피	2056.26	(+5.06)
코스닥	568.90	(−2.50)
금리(국고채 3년)	2.54	(+0.01)
환율(원·달러)	1018.00	(−0.60)



르노삼성 'SM7 노바' 출시 르노삼성자동차는 3일 부산 해운대에서 플래그십(최고급) 모델인 '뉴 SM7 노바' 출시 행사를 개최했다. /르노삼성자동차 제공

대기업 경력 2000명 채용

삼성, 현대·기아차, LG 등 12개 그룹의 120개 협력사를 포함한 200여개 중견·중소기업이 2000여명의 경력직을 채용하는 '2014 중장년 채용한마당'이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다시 뛰는 중장년, 도약하는 중소기업'이란 슬로건을 내건 이번 박람회는 중장년에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협력사와 중소기업에는 우수인재 채용을 대기업이 앞장서서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고용노동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노사발전재단, 대한은퇴자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이번 행사를 공동주최하고 파인드잡이 후원하며, 행사주관은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가 맡는다.

이번 박람회에서 삼성, 현대차, 롯데, 포스코, 한화, KT, 두산, 현대, 만도 등 12개 그룹의 120개 협력사와 일반 중소기업 60개사, 시간제 일자리기업 20개사 등 총 200곳이 참가해 2000여명의 경력직 채용에 나선다.

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경력직 구직자는 2014 중장년 채용한마당 홈페이지(http://jobfair.fki-rejob.or.kr)에서 원하는 중소기업에 사전 면접신청을 하면 박람회 당일 해당기업에 면접 예약이 가능하다.

/박성훈기자 zen@

LG전자 직원이 삼성 세탁기 '고의 파손'

독일 매장서 사고 발생… 경쟁사 폄하목적 논란

세계가전축제 IFA 2014가 열리는 독일에서 국내 대기업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국가적 망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베를린의 한 가전제품 매장 자툰(SATURN)에서 삼성전자 세탁기가 파손되는 일이 벌어졌다. 문제는 이 사태를 일으킨 인물이 국내 라이벌 기업인 LG전자 연구원이라는 점이다.

당시 상황을 보면 3일(현지시간) 오후 LG전자의 연구원인 임원 A씨는 부하 직원과 함께 베를린에 있는 새턴 유로파센터 매장을 찾았다. A 씨가 제품을 살펴보며 삼성전자의 크리스털 블루 세탁기 문을 여닫는 중 도어의 연결부(힌지)가 파손됐다.

이에 매장 직원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A씨는 숙소에서 신분확인을 위한 조사까지 받았다. A씨와 LG전자 직원들은 파손 혐의를 부인했으나, 삼성 매장 측은 CCTV 등을 살펴본 결과 A씨 등이 삼성 세탁기의 도어를 열어둔 채로 힘껏 눌러서 잘 닫히지 않을 정도로 파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삼성 측은 베를린 시내 다른 매장인 새턴 슈테글리츠에서도 CCTV 확인 결과 이들이 매장에 출입했고, 파손된 제품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 현지법인에서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주요 전시회를 앞두고 국내 기업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황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LG전자 관계자는 "해당 임원이 매장을 둘러보다가 삼성 세탁기의 문이 흔들거려 제품에 이상이 있나 살펴봤는데 매장 직원이 일부러 파손한 게 아니냐고 따져 옥신각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LG전자 측은 결국 문제가 생긴 세탁기 4대를 모두 구매하기로 하며 매장 측과 합의했다.

경찰도 제품 구매를 변상으로 보고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LG전자 측 관계자는 "경쟁사 제품을 폄하할 목적으로 훼손시키려 했다면 연구원이 매장을 찾을 이유가 없다"며 "삼성전자 단일 매장이 아닌 복합매장에서 세탁기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행을 당하지는 않았는데 잘못 알려져 억울한 입장"이라고 토로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북적 모란시장, "오늘만 같아라!" 추석을 앞둔 4일 오후 경기도 대표 전통시장인 성남 모란시장이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거리고 있다. /뉴시스

조현준 효성 사장 中企 지원하겠다

"중소기업에 수출 등 영업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겠다."

조현준 효성 섬유PG장이 3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섬유교역전 '프리뷰 인 서울(PIS) 2014' 전시회에 깜짝 방문해 이 같이 밝혔다.

효성·고객사가 설치한 공동 전시부스를 방문한 조 사장은 현장 직원을 격려하고, 고객사 임직원들과 즉석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조 사장은 이 자리에서 섬유·패션산업의 비전과 효성의 동반성장 방향 등을 설명했다.

조 사장은 "효성이 글로벌 넘버1 섬유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효성의 원사를 구매해 준 고객사가 함께 노력해 이룩한 결과"라며 "수출 등 판로개척이 힘든 중소·중견 기업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 효성의 노하우와 경험을 아낌없이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효성은 지난 4월 판로개척이 어려운 고객사의 원단을 국내외 유명 브랜드에 판매하기 위한 TF팀을 신설한 바 있다. /김태균기자 ksgit@



조현준 효성 섬유PG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프리뷰 인 서울 2014' 전시회에 설치된 효성과 고객사의 공동 전시 부스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효성 제공

'에너지 신산업' 날개 단다

산업부 규제완화 앞장… 전기차 등 수혜

전력 수요관리 사업, 전기차 충전 사업,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활용 사업 등 지능형전력망과 연계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날개를 달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정보통신기술(ICT)과 접목한 에너지 신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시장 진입 규제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포지티브 방식은 일부 업체만 시장 진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면 네거티브 방식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되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조치를 우선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사업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과 건물, 공장 등에서 절약한 소량의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 파는 전력 수요관리 사업, 전기차 충전 사업 등이 해당한다.



서울시가 대학 등에 보급 중인 전기 스쿠터 KR모터스의 '로미오'(50cc 스쿠터). /연합뉴스

산업부는 또 전기차 충전이나 ESS 등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는 기업들의 투자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맞춤형 전기요금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ESS나 전기차에 저장된 전기를 거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15년부터는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입을 의무화하고 전력소비를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빌딩' 제도를 2017년부터 공공기관 건물에 의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열린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제 에너지시장, 전력시장도 개인 스스로 만들 수가 있다"며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참여를 제한하는 낡은 제도나 규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mjkim@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조 민 호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미래 스마트홈 기술 '한눈에 본다'

IFA 2014 개막…삼성·LG·애플 불꽃 경쟁





삼성전자(왼쪽)와 LG전자 스마트홈.

삼성전자와 LG전자, 애플이 독일에서 열리는 IFA 2014 전시회기간에 스마트홈 기술 경쟁을 펼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5~10일(현지시간) 열리는 IFA 2014에서 가전제품 라인업에 모바일·웨어러블 연동 서비스를 강화한다. 반면 애플은 이번 행사에 참여하지 않지만 행사 기간 스마트홈 플랫폼 기술을 구현하는 아이폰6를 공개할 예정이다. 아이폰6는 애플의 스마트홈 플랫폼인 홈킷이 최초로 적용된다.

삼성전자는 '미래의 집을 현실로'라는 주제로 스마트홈을 전시장 중앙에 배치하고 자사의 다양한 제품은 물론 다른 업체의 제품까지 연결해 완성된 미래의 집을 공개했다. 전시공간은 실제 집과 유사한 현관, 거실, 주방, 세탁실, 공부방에 꾸며졌다. 사무실과 집에서 다양한 기기를 제어하는 모습을 상황극과 함께 전달하고 관람객이 직접 체험도 할 수 있게 했다.

사무실에 있는 아내가 먼저 집에 도착한 남편에게 친구들의 방문 준비를 부탁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상황극은 갤럭시 스마트폰과 기어, 스마트TV, 에어컨, 세탁기와 도어록, IP 카메라 등을 총 동원해 연출한다. '삼성 스마트홈'은 ▲상황인식 기능 ▲음성인식 기기 제어 ▲에너지 모니터링 ▲안심 서비스가 새롭게 추가됐다.

앞서 지난 4일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갤럭시노트4'에 이어 웨어러블 기기 '삼성 기어S'와 '기어 서클' 등을 공개해 주목받았다.

LG전자의 스마트홈 서비스에서는 라인·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가전제품과 소통하는 '홈챗' 지원 제품을 기존 스마트 생활가전 외에 로봇청소기, 스마트 조명, 무선 멀티룸 오디오 등으로 확대했다. LG전자는 구글의 스마트 온도조절기 '네스트'와 홈챗을 연동한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홈 서비스도 IFA에서 첫선을 보였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홈챗 채팅창이나 네스트 단말기를 통해 외출·귀가를 입력하면 이에 맞춰 집안 스마트 가전들이 최적의 상태로 자동 설정된다.

모바일 분야는 웨어러블 기기 쪽에 무게를 뒀다. LG전자는 최근 국내에서 먼저 공개한 스마트워치 'G워치R'를 세계의 이목이 쏠린 IFA에 재차 선보였다.

애플이 오는 9일 발표하는 아이폰6에 적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홈킷은 지난 7월 개발자회의에서 공개된 바 있다. 홈킷은 애플의 새 OS(운영체제)인 iOS8에서 지원되며, 집안의 조명과 차고 문 등을 네트워크를 통해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즉 iOS8이 탑재된 아이폰6 출시로 홈킷도 본격 상용화할 전망이다. 모바일과 더불어 스마트홈의 핵심기기인 스마트워치 부문에서도 애플은 '아이워치'를 공개, 삼성전자 '삼성기어S', LG전자 'G워치R'과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추석 선물세트를 저렴하게' 4일 오전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홍보도우미들이 추가 할인한 인기 추석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송편 아이템 얻어볼까…

추석 연휴는 '득템' 시즌



추석 연휴에 레어 아이템을 '득템' 해보자.

게임업계가 추석 대목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와 대규모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다. 통상 명절 연휴와 공휴일,방학·휴가 시즌은 게임 이용률이 급격히 올라가 업계 특수로 불린다.

넷마블은 '모두의마블' 추석 맞이 신규 업데이트 및 이벤트를 5일부터 진행한다. 추석 전용 큐브에서는 '트리샤' 등 최상위 콘텐츠 획득이 가능하며 추석 기념 신규 스페셜 카드 및 행운 아이템 등도 얻을 수 있다. 이용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매혹의 향수' 아이템도 '윷'으로 재탄생했다. 넷마블은 가장 인기 있는 행운 아이템 4종을 이벤트 기간 내 1종씩 무료 지급하는 '행운 아이템 체험 이벤트'도 벌인다. '몬스터 길들이기'도 추석맞이 대규모 업데이트를 한다. 이번 업데이트는 7성·6성 캐릭터의 능력치를 상승시키는 '영혼석 시스템'을 비롯해 한가위 이벤트 던전 2종, 신규 모험지역 '요새' 등 추석 연휴에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대거 추가했다.

NHN엔터테인먼트도 한가위 연휴를 맞아 24일까지 '에오스' 이용자에게 하루 최대 20개씩 송편 아이템을 증정한다. 아울러 오는 11일 에오스 출시 1주년을 맞아 이벤트 기간 동안 1시간 이상 이용한 날이 11일 이상이 되면 깜찍한 루팅 펫인 '아기 라마'를 제공한다. 또한 플레이 1시간마다 1주년 기념 선물상자를 받을 수 있다.

엔트리브소프트는 18일까지 '프리스타일2' 접속자에게 송편 아이템을 지급한다. 획득한 송편으로 뽑기 머신을 돌리면 'S급 스페셜카드' '버저비터 스페셜 캐릭터'를 받는다. 18일까지 50경기를 플레이하면 캐릭터의 모든 능력치를 올려주는 특별 아이템 '한가위 포니'도 얻을 수 있다.

/장윤희기자 unique@

이통사 "트래픽 폭증 대비 끝"

특별기간 지정…24시간 모니터링·기지국 증설

이동통신 3사가 추석 연휴기간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모두 5~10일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종합상황실을 통해 24시간 모니터링에 나선다.

SK텔레콤은 추석 연휴기간 이동통신품질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특별소통 및 안전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전국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 공원묘지, 대형마트, 터미널 등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 있는 1만여개 국소를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과다 트래픽 발생이 예상되는 지점의 시스템 용량은 최대 3배 증설하고 이동기지국도 추가로 배치해 트래픽 분산에 나선다.

KT도 특별관리기간에 전국적으로 일평균 370여명을 투입, 24시간 네트워크 모니터링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KT는 추석 연휴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주요 고속도로와 휴게소 중 인파 밀집장소 및 상습 정체지역을 위주로 기지국 증설과 이동기지국 배치, 커버리지 최적화 작업 등 조치를 취했다. KTX 역사나 고속버스 터미널, 성묘객이 몰리는 외곽 지역 역시 통신장비 증설 및 기지국 장비 재배치를 완료했다.

귀성·귀경·성묘길 내비게이션 사용자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올레 내비' 서버도 평소 대비 50% 늘렸다.

LG유플러스는 전국 고속도로와 분기점, 휴게소, 톨게이트 등 통화량 급증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통화채널카드를 추가 증설했다. 고속철도역, 고속터미널, 백화점, 쇼핑몰, 대규모 지역 재래시장과 할인마트, 묘지 등 유동인구 밀집 예상 지역에 대해 최적화 작업과 장비점검을 마쳤다. 공단이나 공장 지역의 정전에 대비해 별도 비상 발전기도 준비해 놓은 상황이다.

명절 특성상 특정지역의 통화량 증가로 인한 통화품질 저하 및 장애 발생에 대비해 중요 거점지역에는 평상시의 2배 수준의 현장요원을 증원했다. 지방 통화량 증가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수도권 교환기와 호를 분산시켜 과부하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철규 KT 네트워크운용본부장 상무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은 광대역 전국망 상용화로 인해 예년에 비해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뤄질 것"이라며 "전국 어디서나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대체휴일' 첫 추석연휴, 은행·카드 업무는?

이동점포·ATM수수료 감면 혜택 제공…"연체이자 적용 안돼"

추석기간 모든 은행들이 문을 닫는다. 은행권은 금융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이동점포와 귀중품 보관, ATM수수료할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특히 오는 추석 연휴에 대체공휴일이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신권 교환을 미리 하지 못했거나 대출 이자 납부 등 급한 업무가 필요한 고객들에게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분 은행은 귀성객이 몰리는 5~7일 전국 고속도록 휴게소 등지에서 이동점포 형태로 문을 연다.

이동 점포에서는 신권 교환과 계좌이체, 입·출금 등의 일반 은행 점포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다.

NH농협은행은 5일과 6일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부산방향)'와 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통영방향)'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고향을 방문하는 고객의 금융편의를 위해 마련된 농협이동점포에서는 신권교환과 현금입출금, 통장정리, 계좌이체 등 각종 금융서비스를 일반점포와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하행선)에서 이동점포(뱅버드)를 운영하며 예금상담과 통장정리, 신권교환 업무와 함께 신권을 담을 수 있는 추석 복(福)봉투도 무료로 제공한다.

이밖에 국민은행은 경부 기흥 휴게소와 KTX 광명역에, 우리은행은 중부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기업은행은 5일 서해안 행담도와 서울·춘천 가평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연다.

지방은행의 경우 대구은행은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동대구역에서 현금 입출금과 카드·통장 재발급 등이 가능한 이동점포 DGB무빙뱅크를 운영한다.

이 기간 부산은행은 부산역광장, 울산롯데백화점, 신세계첼시아울렛 등지에서 귀성객 맞이행사를 통해 신권교환과 떡나눔 행사 등을 진행한다.

추석 기간 수표 발행이나 자동화기기(ATM) 이용과 송금 수수료 감면 혜택도 눈에 띈다.

국민은행은 이번 대체휴일 ATM 등의 수수료를 평일(영업일)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0일 오전 8시반부터 저녁 6시 사이에 KB국민은행 ATM을 이용하는 고객의 출금수수료는 전부 면제된다. 또 타 은행 ATM 출금수수료도 영업시간외 수수료 보다 적게 적용된다.

우리은행도 창구에서 받는 일반권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장당 400원)를 5일까지 면제한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창구와 전통시장 주변 ATM에서 구매할 때 평소의 할인율(5%)보다 높은 10%의 할인율을 5일까지 적용한다.

이와 함께 외환은행은 추석연휴기간에 외국인 근로자의 금융거래를 돕기 위해 휴일에도 송금센터 문을 연다.

광주은행 또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송금수수료 면제와 대여금고 무료 임대서비스 등 다양한 사은행사를 실시한다.

특히 은행창구에서 부모님께 100만원 이하를 효도 송금하는 경우 송금수수료 전액이 면제된다.

부산은행은 오는 12일까지 대여금고를 열어 귀중품 등을 무료로 보관해준다.

한편 대출이자 카드대금 납부날짜가 대체휴일을 포함한 추석 연휴와 겹치게 될 경우 연체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알뜰하게 추석 장 보는 방법은?

짠순이 주부 경제학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주부들에겐 명절 장보기가 부담스럽기만 하다. 태풍, 폭우 등이 겹치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목돈이 많이 들어가는 추석 장보기, 알뜰하고 똑똑하게 준비해 보자.

우선 '추석 장보기 리스트'를 만들자. 필요한 목록을 작성한 뒤 장을 보면 더욱 쉽고, 알뜰하게 쇼핑을 할 수 있다. 차례상에 올라가는 재료부터 필요한 집기까지 꼼꼼하게 메모한다. 이렇게 하면, 적당한 양을 중복되지 않게 구입할 수 있다.

미리 장 볼 시기와 장소를 정한다. 추석에 임박해서 장을 보면 제품 가격이 껑충 뛰어 비싸게 구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제품, 신선도가 필요한 제품 등을 구분해서 장을 보는 게 좋다.

생선류는 미리 구매한 뒤 깨끗이 손질해서 보관해둔다. 사과와 배 등 장기 보관이 가능한 과일은 미리 구입해 둔다. 또 부침가루, 식용류, 마른 나물 등도 넉넉하게 구매해 놓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유통정보(www.kamis.co.kr)사이트의 '주간 알뜰 장보기 물가정보'는 주별 물가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준다. /김민지기자 minji@



신한銀, '미래설계 통장' 30만좌 돌파 신한은행은 은퇴생활비 관리 입출금 전용통장인 '미래설계통장'의 가입좌수가 30만좌를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신한은행 제공

LIG손보 사장, 영아원 찾아 나눔활동

김병헌 LIG손해보험 사장은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김요한, 이경수 등 LIG그레이터스배구단 선수들과 함께 지난 3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위치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사랑장애영아원'을 찾아 나눔활동을 펼쳤다.

김 사장은 이날 영아원 아동들과 송편을 빚고 윷놀이를 하며 추석 명절의 즐거움을 함께 나눴다. 이후에는 아동들과 일대일로 저녁식사를 직접 먹여주기도 했다.

이 밖에도 LIG손해보험은 직접 제작해 한국척추측만증재단에 기부한 척추측만 검진 버스를 활용해 영아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무료 검진을 진행했다. 1사1촌 결연마을인 전북 장수 구신마을에서 생산된 사과 15상자를 영아원에 추석 선물로 전달하기 했다.



김병헌(왼쪽) LIG손해보험 사장과 LIG그레이터스배구단 선수들이 지난3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사랑장애영아원'에서 나눔활동을 했다. /LIG손해보험

김 사장은 "오늘 함께 송편을 만든 영아원 아이들 모두가 푸른 소나무처럼 생기롭고 튼튼하게 자라나기를 바란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데 LIG손해보험의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8개 카드사 순익 1조 돌파

올해 초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에도 불구하고 농협·국민·롯데 등 상반기 전업 카드사의 당기 순이익이 두자릿수로 뛰어 올랐다.

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4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8개 전업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73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카드사별로는 삼성카드의 당기순이익이 2626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52.2 증가했고, 현대카드도 57.1% 급증한 1194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신한카드는 3284억원의 순이익을 올렸으나 전년보다는 12.3% 감소했다.

이밖에 정보 유출 사태로 곤욕을 치뤘던 KB국민카드의 순이익은 8.2% 증가한 1909억원, 롯데카드는 5.1% 늘어난 743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6월말 현재 신용카드 발급수는 9371만장으로 1억만장 아래로 줄어 들었다. /백아란기자

KB 임영록·이건호 '중징계'

금감원…이 행장은 사의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뒤엎고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최종 결정했다.

금융지주회사 회장과 행장이 한꺼번에 중징계 통보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관련, 이 행장은 이날 전격 사임의사를 밝혔다.

최 원장은 "국민은행 주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행장의 중징계는 최 원장의 결재로, 임 회장의 중징계는 금융위 의결을 한번 더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그는 임 회장에 대해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사업과 그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수차례 보고를 받았는데도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해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했고, 국민은행의 주전산기를 유닉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자회사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행장에 대해서는 "작년 7월 이후 감독자의 위치에서 주 전산기 전환사업에 대해 11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았는데도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해 위법과 부당행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사태 확대를 방치했고,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했다"고 중징계 사유를 밝혔다.

임 회장의 징계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이달말쯤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

한편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이날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자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KB금융 내분사태는 당분간 이사회를 중심으로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는등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대일본’은 낭설이다



권기봉의 **도시산책** <94>

한때 이런 이야기가 돈 적이 있다. 서울의 백악산은 ‘대(大)’자 형상을 하고 있으며, 광화문 자리에 있던 조선총독부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일(日)’자를 닮았고, 경성부청사는 ‘본(本)’자를 의미했다고 말이다. 일제가 이 땅을 지배하던 시절 조선인의 기를 꺾기 위해 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와 경성부청 건물을 일부러 ‘대일본’ 모양으로 설계했다는 이야기다.

자연물인 백악산은 논외로 치고, 지금은 철거해버린 조선총독부의 경우 위에서 내려다 보면 ‘日’자를 닮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러 그렇게 지었다는 증거는 없다. ‘日’자형 건물을 비롯해 ‘입 구(口)’자나 ‘눈 목(目)’자, ‘밭 전(田)’자 등 건물 한 복판에 정원을 둔 중정식 건물은 근세 부흥식, 즉 네오 바로크식 건축의 전형적인 스타일이다.

서울시청사를 거쳐 현재 서울도서관으로 이용되는 옛 경성부청사도 그렇다. 위에서 보면 ‘本’자를 닮기는 했다.

그러나 경성부청사를 지을 때 ‘本’자를 본따 설계했다는 이야기는 일제강점기의 어떤 기록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도리어 건물 설계에 참여했던 조선총독부 건축과의 사사 케이이치는 ‘궁(弓)’ 모양, 즉 활대를 닮게 지으려 했다는 증언을 남겼다.

백악산과 조선총독부, 경성부청사가 한자 ‘大日本’을 닮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조선총독부 청사를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던 때로, 총독부 철거를 부르짖던 이들의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용된 이야기에 불과했다.

설령 조선총독부와 경성부청사를 지을 때 실제로 ‘대일본’을 형상화하려 했다 해도, 그것들을 헐어버린다고 해서 일제잔재가 청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독일이나 중국이 부정적인 내용의 역사유산이라고 해도 일부러 보존하고 남겨 교훈으로 삼는, ‘기억의 의무’를 중히 여기는 이유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그들이 유대인수용소나 정치범수용소 그리고 일본군에 패한 전적지들을 없애지 않고 잘 보존하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그 역사가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잊지 않기 위해서다.

/‘다시, 서울을 걷다’ 저자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고부 갈등 심각한데 해결책 있을까
남편 중재 필요, 사주학 공부하세요

Q

59년 여자 64년 6월 28일 음력 오후
여자 36년 4월 3일 음력 해 뜰 무렵

알코올중독으로 병원입원 퇴원을 반복하다 지금은 친정집에 있습니다. 술만 먹으면 집으로 찾아와서 한바탕 전쟁을 치릅니다. 고부사이가 엄마 딸 이상으로 살아왔습니다. 누가 어머니와 이간질을 시켜서 앙숙이 되어서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있어 걱정입니다. 고부 갈등 개선 될 수 있는지요?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A 사주팔자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라면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운명은 고정된 것이고 운명은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냐며 질문을 받습니다. 맞는 말이기도하며 맞는 말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세세생생을 두고 지은 업식(業識)은 윤회의 근간이 되며 현상에 나타납니다. 그 기호는 사주라는 네 기둥을 구성하고 있는데 마주치는 상황에서 몸과 마음이 아우러진 내가 가지고 상황에 부딪치게 됩니다. 태어난 운명의 굴레가 타고난 기호처럼 흘러갈 수도 있고 아니면 거스를 수도 있는 것이니 운명도 그에 의해 움직이고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그 현상이 좋게 작용하면 좋은 것이요 나쁘게 작용하면 흉함이 있게 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하는 고부 갈등의 원인은 수없이 많은데 귀하 가정의 경우 부인의 사주에서 남편자리에 시어머니가 함께 앉아 있는 형상이므로 남편은 효자요 시간이 가면서 부인은 짜증스럽습니다.

두 분 사주에 상실감으로 사사건건 며느리의 흠을 잡고 시어머니가 시어머니로 보이지 않게 되는 사술귀문관살(巳戌鬼門關殺)에 서려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갈등을 받아들여야하는 남편의 역할이 이때 중요한 해결의 실마리가 됩니다. 만약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밀착돼 있으면 며느리 입장은 삼각관계로 보게 되므로 더욱 심하게 될 것이니 남편으로서의 경계선을 잘 지켜주면 고부 갈등이 개선 될 수 있다는 평범한 얘기는 이 시점에서 짜증스런 답변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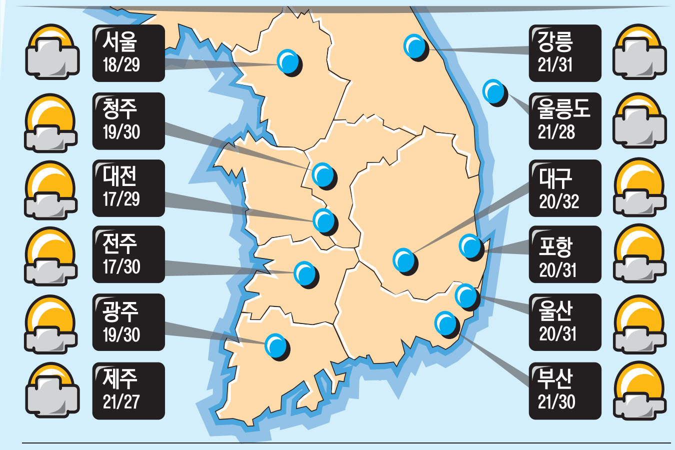
부인과 어머니의 사주를 보면 원수가 되어 갈라지는 운이므로 갈등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취미로 사주학 공부를 해서 그 순간 마다 헤쳐나가도록 하시는 방법 외에는 별 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날씨

9/5 金 일출시각 06:05 일몰시각 18:56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추석연휴를 맞아 나들이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들이 도시락을 챙길 때는 1회분씩 소량으로 준비하고 4시간 이내에 먹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기가능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8		5		9				
7	9							5
	2	3	1					
	4			7	3		2	
		7	8		1	9		
	3		9	6			7	
					6	4	5	
2							3	9
				1		2		7

		5	9					1
	6			4			7	
4	8				6	5		2
							6	7
		3		5		4		
8	7							
3		2	5				1	4
	4			1			9	
6					4	3		

스도쿠 정답

8	1	5	4	9	7	3	6	2
7	9	4	6	3	2	8	1	5
6	2	3	1	5	8	7	9	4
9	4	8	5	7	3	1	2	6
5	6	7	8	2	1	9	4	3
1	3	2	9	6	4	5	7	8
3	7	9	2	8	6	4	5	1
2	8	1	7	4	5	6	3	9
4	5	6	3	1	9	2	8	7

7	3	5	9	8	2	6	4	1
2	6	1	3	4	5	9	7	8
4	8	9	1	7	6	5	3	2
9	5	4	8	3	1	2	6	7
1	2	3	6	5	7	4	8	9
8	7	6	4	2	9	1	5	3
3	9	2	5	6	8	7	1	4
5	4	7	2	1	3	8	9	6
6	1	8	7	9	4	3	2	5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신점[神占] 운세 9월 5일 (음 8월 12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쥐 — **48년생** 자손들 일엔 냉정할 것. **60년생** 우유부단하면 찾아온 기회 놓친다. **72년생** 탁월한 성과에 엄지 치켜드는 사람이 많구나. **84년생** 기다리던 소식 듣는다.

소 — **49년생** 오지랖이 넓으면 피곤하다. **61년생** 가족의 투정에 귀 기울여라. **73년생** 막혔던 일은 돌파구가 보인다. **85년생** 잘 나가는 사람 닮으려하면 나만 피곤~.

호랑이 — **50년생** 대접 받으려면 말 아껴라. **62년생** 변화는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게 좋다. **74년생** 흔들리는 마음부터 바로잡아라. **86년생** 상상만 해도 즐거운 계획 세운다.

토끼 — **51년생** 오라는 곳이 많아 바쁘다. **63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희망가 부르는구나. **75년생** 복이 넝쿨째 굴러와 비명이 터진다. **87년생** 연인의 달콤한 문자에 오~해피.

용 — **52년생** 말과 행동을 같이 할 것. **64년생** 기분 좋게 지출할 경사 생긴다. **76년생** 한번 결정한 일은 번복하지 말라. 88년생 갈 길이 먼데 연인이 발목을 잡는다.

뱀 — **53년생** 자녀에 작은 고민이 생긴다. **65년생** 자녀의 고생은 모른척할 것. **77년생** 하나를 주고 열을 얻는 격이다. **89년생** 영웅의 왜곡된 모습보고 실망의 하루~.

말 — **42년생** 음식으로 인한 탈 조심~. **54년생** 싫은 소리를 들어도 참아야 한다. **66년생** 직언도 상대방 입장 고려해서 할 것. **78년생** 남의 진심 비딱하게 보면 손해 본다.

양 — **43년생** 중매한 일은 성사된다. **55년생** 아름다운 뒷모습 남기는데 신경 써라. **67년생** 쉬운 길보단 어려운 길 택하는 것이 좋다. **79년생** 우정에 돈이 개입되면 곤란~.

원숭이 — **44년생** 짜증이 나도 참아야 편안~. **56년생** 역마살이 동해 움직이면 이득이다. **68년생** 눈앞의 이익 때문 규칙을 깨지 말라. **80년생** 오랜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온 격이다.

닭 — **45년생** 집안에 훈풍이 분다. **57년생** 보이지 않는 변화를 잘 읽어라. **69년생** 밋밋한 계획이 원래 알찬 법이다. **81년생** 사소한 일에 에너지 낭비 않도록 할 것.

개 — **46년생** 갑자기 친절한 사람 조심~. **58년생** 일은 힘들지만 보람찬 하루가 된다. **70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82년생** 도랑치고 가재를 잡는 격이다.

돼지 — **47년생** 가족이 한자리 모여 즐겁다. **59년생**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나 고민~. **71년생** 모임에 가면 기분 좋은 일이 생긴다. **83년생** 이성을 만나 흥분된 하루~.



70년 전통의 대한민국 정통 제례주
백화수복
고급청주
白花
백화수복
白花壽福
백화수복 전속모델 김수미
대한민국 대표청주
SINCE 1945
집집마다 차례상은 달라도
추석에는 백화수복
가장 오랫동안 사랑 받아온 대한민국 정통 제례주 백화수복 – 집집마다 차례상은 달라도, 명절에는 역시 백화수복입니다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